

홀리타임즈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

데이빗리목사

REVELATION Revealed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 차

CONTENTS

<제 1 부>

- 제 1 장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_ 5
- 제 2 장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거한다 _ 28
- 제 3 장 천국과 거룩한 성을 구분하라 _ 29
- 제 4 장 나는 천국백성인가? _ 50
- 제 5 장 세상에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_ 66
- 제 6 장 짐승의 표, 누가 맞는가? _ 124
- 제 7 장 재앙 집행자, 마귀 _ 131
- 제 8 장 마귀와의 전쟁 _ 164

<제 2 부>

제 1 장	요한계시록 1장	_ 185
제 2 장	요한계시록 2장	_ 215
제 3 장	요한계시록 3장	_ 250
제 4 장	요한계시록 4장	_ 280
제 5 장	요한계시록 5장	_ 296
제 6 장	요한계시록 6장	_ 308
제 7 장	요한계시록 7장	_ 324
제 8 장	요한계시록 8장	_ 344
제 9 장	요한계시록 9장	_ 354
제 10 장	요한계시록 10장	_ 365
제 11 장	요한계시록 11장	_ 373
제 12 장	요한계시록 12장	_ 389
제 13 장	요한계시록 13장	_ 407
제 14 장	요한계시록 14장	_ 423
제 15 장	요한계시록 15장	_ 441
제 16 장	요한계시록 16장	_ 451
제 17 장	요한계시록 17장	_ 469
제 18 장	요한계시록 18장	_ 482
제 19 장	요한계시록 19장	_ 491
제 20 장	요한계시록 20장	_ 505
제 21 장	요한계시록 21장	_ 530
제 22 장	요한계시록 22장	_ 563

요한계시록의 구조



1 장

/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요

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려 주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세상의 종말에서 구원을 받으며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는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매우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일곱교회에 서신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이며 어떻게 해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교회'를 문자 그대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곱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아시아의 일곱교회에 국한된 내용으로 받아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기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지를 받은 일곱교회는 곧 성도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로 하여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거할 천국을 모두 마련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모든 '이기는 자'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베소교회와 같은 성도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으며 서머나교회와 같은 성도에게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명하셨습니다. 버가모교회와 두아디라교회와 사데교회는 같은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은 성도에게는 끝까지 주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하셨으며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은 성도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 입으라고 명하셨습니다(그림 참조).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함축해서 언급되었습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세상의 재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기록해 놓은 책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사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많은 강사들이 성도를 위협하거나 성도를 옹아매는 도구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며 이는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

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희망을 부여합니다.

“[계 1: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여기십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나라'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

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
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을 통해 강 좌우에 생명
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맺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
국’을 소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만국’이
곧 ‘나’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자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 영생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
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나도 왕
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왕이다’라고 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왕으로 사는 것에 국한하
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144,000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십사만사천명에
대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이기는 자’들이
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지고 14장에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
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계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데 세마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를 입는 자들은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라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세마포를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 있을 때 비로소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

천국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오직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일곱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주님은 일곱교회에 서신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곱교회에 서신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계 1:11]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일곱교회는 성도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교회의 특성은 성도 개인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교회를 문자 그대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곱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아시아의 일곱교회에 국한된 내용으로 받아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기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은 일곱교회는 곧 성도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일곱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 에베소교회 성향을 가진 사람(계 2:1-7)

에베소교회와 같은 성도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지만 에베소교회와 같은 성도는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성도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하셨으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교화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모습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은 일곱교회의 사자이며 '일곱 촛대'는 일곱교회를 의미합니다.

“[계 1: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의 손에 일곱 별이 들려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며 성도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은 교회에만 거하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 서머나교회 성향을 가진 성도들(계 2:8-11)

서머나교회와 같은 성도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거하는 성도입니다

“[계 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러한 환난은 유대인들의 훼방에 의한 것이나 이는 '사탄의 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당을 지어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이는 사탄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고 남편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

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계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3) 버가모교회의 성향을 가진 성도들(계 2:12-17)

버가모교회와 같은 성도는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를 가리킵니다(계 2:13). 이러한 성도는 순교자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버가모교회 성도를 책망하셨는데 이는 저들이 발람의 교훈(민 22-24장)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 2: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 2: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4) 두아디라교회 성향을 가진 성도들(계 2:18-29)

두아디라교회와 같은 성도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
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성도는 능력이 많은 성도입니다. 헌신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세벨의 죄
에 빠집니다. 이세벨은 나라를 망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하
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행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세대화
시키는데 앞장섭니다.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업에 참여
케 하고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계 2: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지만 이들은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겼습
니다.

“[계 2: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
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아폴로'와 음행의 신 '이세벨'
을 따라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지만 주님은 그
태양신보다 더 밝은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동업이 발달된 두아디라 사람들이 청동업을 통해 벌어드린 돈
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죄악을 경고하기 위해 빛난 주석(청동)과 같은
하나님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환
난 가운데 던져지고 저들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계 2: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 2:22] 볼지어
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
데에 던지고 [계 2: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

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러한 두아디라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
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석과 같은 발로 단단하게 단단하게 서계신
주님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계 2: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
시되”

5) 사데교회 성향을 가진 성도들(계 3:1-6)

사데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살아있으
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
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 3: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

“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악한 일은 먼저 나서는 악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성도라 할지라도 저들이 간간히 '흰 옷'을 입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 3: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드렸던 때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일곱영'은 성령하나님을 의미하며 '일곱별'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별볼일 없고 교회에 피해만 끼치는 악한 성도라 할지라

도 성령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이러한 악한 성도를 변화시켜
별처럼 만드십니다.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
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6) 빌라델비아교회 성향을 가진 성도들(계 3:7-13)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은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계 3: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
 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
 하였도다”

이런 성도들은 말없이 꾸준하게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합니다. 말없이
 꾸준하게 교회 일을 돕습니다. 말없이 꾸준하게 헌금생활을 합니다. 교
 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
 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를 살리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은 이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빼

앗기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계 3: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빌라델비아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계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베드로도 다윗의 열쇠를 받았 습니다.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성도이지만 오히려 잘난체하고 능력있다 의시대는 사람들이 저들 앞에 절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 3: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 라오디게아교회 성향을 가진 성도들(계 3:12-22)

라오디게아교회와 같은 성도는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계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계 3: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또한 이러한 성도는 스스로 부요한 자여서 부족함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계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저들에게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 입어 수치를 면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계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일곱개 교회 중에서 '돈'을 언급한 것은 라오디게아교회 뿐입니다. 이들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성도는 미지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은 천국의 옷입니다. '안약'은 영이 활성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시요 창조 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십니다.

“[계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
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교회를 통한 나의 영적상태 파악하기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교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왜 저들을 책망하셨나?	주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에베소교회 (계 2:1-7)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버린 것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계 2:8-11)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없음	없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사망을 면하게 되리라
버가모교회 (계 2:12-17)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	사단의 방해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두아디라교회 (계 2:18-29)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권세를 주리라
사데교회 (계 3:1-6)	일곱염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	저들 중 몇 명은 흰 옷을 입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복음을 받아드렸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 하리라
빌라델비아교회 (계 3:7-13)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	없음	끝까지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교회 (계 3:14-22)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의 근본이신 주님	없음	저들의 행위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것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입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으로 통치하리라



2 장

/

나는
천국백성인가?

나는 천국백성인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천국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주는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그리고 19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144,000명에 대한 내용은 다시금 14장에서 다시금 144,000명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반복은 이 세상의 재앙이 일곱인에서 일곱나팔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다시 일곱나팔이 일곱대

접으로 거듭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이해하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보다 쉽게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십사만사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44,000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며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144,000명은 어떤 특정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숫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4,000명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었으나 이는 실제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이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대한민국 백성은 원래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는 12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144,000 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거룩한 성에 보면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

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또한 거룩한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를 곱하면 144가 만들어집니다. 14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가 된 사람이어야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 (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십사만사천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십사만사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야 합니다.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만이 144,000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옷을 깨끗히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못합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없어집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를 통해 씻는 것입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들은 먼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
느니라”

우상을 섬기며 짐승을 경배하는 삶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
위일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것입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
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
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
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
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은 144,000 명에 해당되는 성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지 따라가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
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이며 처자식을 버리는 길입니다.

“[눅 18: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
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 18:30]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44,000명의 성도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
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
러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
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한님께서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작정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정된 자들은 오직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계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드로는 온 성도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3 장

/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거한다

천국을 알아야 천국에 거한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거하는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천국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또 다시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5장까지의 내용보다 20~22장의 내용은 천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그림 참조).



첫번째 땅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땅은 모든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륙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짐승이 방주로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일시에 전 세계 곳곳으로부터 방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오늘날 형성된 지구의 땅의 모습을 보면 아프리카 땅과 아메리카 땅의 모양이 이전에 붙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로 붙어있었던 땅의 형태를 가리켜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판가이아>에서 따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1915년 독일의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안한 이름으로 현재까지 불리워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은 이처럼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지만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대륙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처음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번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에 홍수를 내리시어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셨던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만영했기 때문입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두번째 땅

하지만 두번째 땅 역시 죄악으로 만영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첫번째 땅보다 훨씬 더럽혀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두번째 땅이 더럽혀진 까닭은 사탄의 활동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득불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땅에 임했던 심판은 '물'이었으나 두번째 땅에 임할 심판은 '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첫번째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두번째 땅은 곧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세번째 땅

이렇게 두번째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세번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번째 땅은 '복천년'이 이뤄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은 사탄으로 더럽혀졌지만 세번째 땅은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주님의 재림하심에 의해 사탄이 완전히 진멸당할 때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습니다. 용은 “..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2절 상)입니다. 천사는 사탄을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가둬 둘 것입니다.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게 된 사탄은 도저히 인간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업습

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
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 속에 갇힐 때 사탄을 추종했던 악한천사들도 함께 갇
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천사는 하늘전쟁에서 사탄의 편에 섰다
가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사탄
을 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 이제 그
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3절 중)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
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나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
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천년이 끝나고서 천국의 삶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취할 것이며 강 주변의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만국'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나라'로 여기십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요한은 여러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또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4절 하)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살아서’라는 단어는 <에제 산>인데 이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 곧 장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이미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복천년이 시작될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만 첫째 부활은 오직 합당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야 하며 2)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당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켜야 하며 3)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며 4)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

어 천 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좌정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이뤄질 것입니다.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실제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를 차지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왕 노릇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만큼 믿음이 뛰어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참여하는 성도보다 훨씬 많을지 모릅니다. 이는 이 땅에 살면서 왕 노릇하며 살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큰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후사'이니 이미 당신은 '거룩한 나라'요 '왕갈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번째 땅

이러한 복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네번째 땅으로 다시금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네번째 땅은 세번째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땅은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과 연결되는 변화 속에

세워진 새로운 땅이지만 네번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있었던 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이전 땅'과 다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며 '바다'도 없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땅과 바다가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 장

/

천국과 거룩한성을
구분하라

천국과 거룩한 성을 구분하라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은 천국 위에 거하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
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런데 사도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가리켜 "... 그 예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2절 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왜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을 가리켜 ‘예비한 신부’같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성’에는 오직 주님의 신부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거하는 것과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은 이미 21장 2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처럼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재차 ‘거룩한 성’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거룩한 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에 대한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을 표현할 때 거듭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천국 위에 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은 천국과 구별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지 그 성의 빛이 마치 귀한 보석처럼 빛났으며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에는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룹과 화염검'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것과 같은 것임

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열두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의 문들은 각 면마다 3개씩 놓여져 있었습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남편에 3개, 북편에 3개씩 도합 12개의 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2개의 문은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12개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또한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합니다. 성곽이 튼튼해야 성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는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사도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거룩한 성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의 전체를 척량하면서 그 문들과 성벽을 모두 척량하였습니다.

“[계 21: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갈대’는 척량할 때 사용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갈대’라고 하였으니 천사의 척량이 매우 정확함을 뜻합니다. 한치의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는 매우 정확한 척량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거룩하지 못한 신부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천사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놓여져 있는 두 그룹에 의해 합당치 못한 자들이 결코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였더니 가로가 12,000 스타디온이고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며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여 장광고가 모두 같았습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
과 고가 같더라”

거룩한 성이 이처럼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하
는데 이는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만을 받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
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우상을 섬기는 신부는 절대로 거룩한 성
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의 길이가 12,000 스다디온이라고 하였는데 이 길
이는 대략 2,400km 정도입니다. 이는 한 스다디온의 길이가 185m 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넓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는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덴버정
도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 전체를 캘리포니아와 덴버 사이
에 집결 시켜 놓은다면 미국 사람만 해도 부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거룩한 성의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
을까요? 그것은 12,0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
니다. 1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천국의 숫자와 4라는 땅의 숫자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3과 4를 더하여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7이라면 3과 4를 곱하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12입니다. 7은 완
전수이지만 12는 천국수입니다.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이
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를 가장 큰 숫자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는 성곽의 두께를 측정했는데 그 두께가 144 규빗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성벽의 두께가 70m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두꺼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70미터나 되는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4,000의 수가 나옵니다. 이들 숫자와 성벽의 두께인 144규빗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 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사도요한이 들었던 인 맞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7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144,00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는 3과 4를 더한 수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3과 4를 더해 만들어진 7의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는 ‘천국’을 가리키

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게 될 때 144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12 \times 12 = 144$). 여기에다가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의 두께가 144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성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144라는 숫자는 천국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놓여져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화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석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에봇에 걸쳐진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 39:8]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출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
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은 모두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
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
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거룩한 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거룩한 성의 열두 문에 적혀져 있는
것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거룩한 성의 기초석에 적혀져 있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와 연관이 되어
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두 지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은 유대인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이바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
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한 열두 제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거룩한 성의 성곽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백성인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재앙을 설명하면서 천국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주는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그리고 19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144,000명에 대한 내용은 다시금 14장에서 다시금 144,000명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그림 참조).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4,000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며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재앙과 함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급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복은 처음에 7장에서 언급되었으며 또 다시 14장에서 거듭 반복되다가 마지막으로 19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반복은 이 세상의 재앙이 일곱인에서 일곱나팔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다시 일곱나팔이 일곱대접으로 거듭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이해하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보다 쉽게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44,000명은 어떤 특정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숫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4,000명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었으나 이는 실제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은 144,000명에 해당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4절).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짐승을

경배하는 삶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144,000 명에 해당되는 성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4절 중).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이며 처자식을 버리는 길입니다.

“[눅 18: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 18:30]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144,000명의 성도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은 여러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롬 8:29]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한님께서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작정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4,000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정된 자들은 오직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5절). 그래서 베드로는 온 성도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5 장

/

세상에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과의 관계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일곱번째인에서 일곱개의 나팔이 나오고, 일곱번째나팔에서 일곱대접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인보다 일곱나팔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곱나팔보다 일곱대접이 더욱 구체적이다.

일곱인



첫째인

흰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이 없어지고 점점 사탄의 활동에 의해 더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계 6:2)



둘째인

붉은 말. 세상을 전쟁으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계 6:3-4)



셋째인

검은 말. 경제적인 공황으로 더욱 세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계 6:5-6)



넷째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고 강력해짐으로써 세상의 25%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계 6:7-8)



다섯째인

사탄의 활동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계 6:9-11)



여섯째인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계 6:12-17)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계 7:1-3)

인구는 사람(14,400명)과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계 7:8)



일곱째인

일곱째인에서 일곱나팔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본다. 일곱째인은 곧 일곱개의 나팔을 의미한다.(계 8장)

일곱나팔



첫째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세상의 1/3을 태워버린다.(계 8:7)



둘째나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피로 만들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의 1/3이 죽고 부러진다.(계 8:8-9)



셋째나팔

햇불같은 큰 벚(쑤이라고 불림)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1/3의 물이 쓰게 된다.(계 8:10-11)



넷째나팔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져서 낮의 1/3이 빛을 잃는다.(계 8:12)



다섯째나팔

무저갱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지고, 황충들이 다섯달동안 사람들을 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계 9:1-12)



여섯째나팔

네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인류의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계 9:13-21)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도 고난을 받는다.(계 11:1-14)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다.(계 12-13장)

집중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4,000명이 시온산(거룩한성)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계 14장)



일곱째나팔

일곱째나팔에서 일곱대접으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본다. 일곱째나팔은 곧 일곱대접을 의미한다.(계 11장)

일곱대접



첫째대접

집중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연병이 생기는 재앙이다.(계 16:1-2)



둘째대접

대접이 바다(지중해)에 쏟아지니 바닷가 죽은 자의 피갈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계 16:3)



셋째대접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아졌을때 붉은 피로 변했다.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먹도록 했다.(계 16:4-7)



넷째대접

대접이 해에게 떨어지는데,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계 16:8-9)



다섯째대접

집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자 그들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치 않는다.(계 16:10-11)



여섯째대접

우브라데강이 마르고 아바갯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계 16:12-16)



일곱째대접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번개, 뇌성, 지진, 우박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킨다.(계 16:17-21)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만다.(계 17-18장)

복원된 후에 부활,심판이 있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된다.(계 19-22장)

세상에 임할 재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5장과 20~22장 사이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19장을 통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그림 참조).

'일곱 인'의 내용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인'의 내용은 너무나 짧고 요약적인 것이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것이 '일곱 나팔'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것이 또 다시 '일곱 대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그림 참조).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임하게 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 역경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에 대해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내용은 세상에 임하는 모든 세상의 종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을 당

지구종말 징조(순서별 설명)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첫째인 (계 6장)	둘째인 (계 6장)	셋째인 (계 6장)	넷째인 (계 6장)	다섯째인 (계 6장)	여섯째인 (계 6장)	일곱째인 (계 6장)
---------------	---------------	---------------	---------------	----------------	----------------	----------------

- * 일곱인/일곱나팔/일곱대접은 지구종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 * 일곱인 → 일곱나팔 → 일곱대접 순서대로 재앙이 일어난다.
- * 일곱번째 인에서 일곱개의 나팔이 펼쳐지고, 일곱번째 나팔에서 일곱개의 대접이 펼쳐지는 식으로 전개된다.
- * 하나님께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시방에서 물려온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계 7장).

첫째나팔 (계 8장)	둘째나팔 (계 8장)	셋째나팔 (계 8장)	넷째나팔 (계 8장)	다섯째나팔 (계 9장)	여섯째나팔 (계 9장)	일곱째나팔 (계 10장)
----------------	----------------	----------------	----------------	-----------------	-----------------	------------------

- *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계 12장)
- * 여섯째인 후에 인맞은 14,400명과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계 7장), 또 다시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택함받은 14,400명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계 14장)
-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반복된다.



- * 바벨론의 멸망(계 18장), 짐승의 멸망(계 19장), 사탄의 멸망(계 20장)
- *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멸망을 당한 후에 복천년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첫째부활에 참여한다(계 20:4-6)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고전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동안 복천년이 이뤄진다. 복천년이 끝날때 잠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은 백성을 미혹하며 “곡과마곡” 간의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계 20장)
- *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 사탄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0장)

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다만 이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때에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무질서해지며 하늘과 공기와 땅과 물이 더럽게 변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더럽혀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힘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경배자를 찾기 위해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약간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참 경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일곱인에 대하여

1) 첫째 인

“[계 6: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뺏을 때 나타난 것은 '흰 말'이었습니다. '흰 말'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며 다소 평온하고 평범한 날들이 진행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매우 깨끗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시한번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거한 마귀로 인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럽혀진 것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사냥을 위한 활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였거나 일에 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의 삶을 의미합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흰 말'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지극히 일반적인 세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마귀의 공격을 가장 적게 받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죄를 짓고 더럽혀진 자들은 정직하고 질서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점차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롬 1: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째 인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첫째 인의 모습을 지나 둘째 인이나 셋째

인, 혹은 넷째 인이나 다섯째 인의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마귀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어서 그만큼 세상은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둘째 인

“[계 6: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계 6: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붉은 말 탄 자' 역시 상징입니다. 실제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온 것이 아니며 붉은 탄 자의 영향에 의해 이 땅에 화평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 '붉은 말'로 그 상징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화평'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만큼 축복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지만 마귀는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제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우리에게서 화평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화평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빼앗겨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화평’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도 ‘화평’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도 ‘화평’을 빼앗긴 자이며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땅이었지만 마귀로 인해 그 땅에 ‘화평’이 없어지면서 세상이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물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둘째 인은 바로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둘째 인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셋째 인이나 넷째 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셋째 인

“[계 6: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 6: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말’은 셋째 인에 해당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저울은 밀을 재고 보리를 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재니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가 되고 보리가 석되었습니다. 이는 보통 때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12배에서 16배나 높은 액수였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셋째 인에 해당되는 세상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물가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받는 임금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란 말은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치말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디케오>인데 이는 ‘손상시키지 말라’, ‘잘못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것만큼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어짐으로써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이

없어지면 물가도 자연히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이 끊이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드신 평화로운 세상을 가만히 놔둘 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돌이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남에 대한 미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화평'이 임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4) 넷째 인

“[계 6: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계 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 더러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또한 상징 인데요 세상의 모습이 청황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황색'이라는 단어는 <클로로스>인데 이는 '누른빛의 푸른색'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병든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의 모습이 마치 누른 빛의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황색 말'은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가득차 있음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도 영원할 땅이었으며 인간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듦으로 인해 인간은 점차적으로 병들과 죽게 되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뒤에 '음부'가 따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8절 중).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8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붙잡히는 자는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사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

드신 최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입니다.

5) 다섯째 인

“[계 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 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계 6: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극심화될수록 순교자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믿음을 배반치 않는 자들입니다. 짐승은 절하지 않는 자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도요한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저들은 '저희의 가진 증거'를 굳게 지킨 자들입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는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서 '신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갚아 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 61: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은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모든 순교자의 피를 갠다 주실 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짐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며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흰 두루마기'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의미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스톨레 류케>로 <스톨레>라는 단어는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저들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악으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섯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다섯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악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을 구세주로 삼는 스스로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임이 저들의 생을 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저들처럼 우리들도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할 목숨이니 저들처럼 순교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잠시 심을 가질 것입니다.

6) 여섯째 인

“[계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계 6: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계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계 6: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12-14절). 이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욘 2:31]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증거를 주실 때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예언하셨습니다.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도요한이 바라 본 여섯째 인의 징조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욘 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고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에 살아남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7) 일곱째 인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 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모든 재앙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인에서 다시금 ‘일곱나팔’로 전개되어 세상의 재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구분	해당 장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 분해
일곱 인	6장	일곱 인에 대한 설명(1)
	7장 1-3절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1)
	7장 4-17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1)
일곱 나팔	8-11장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2)
	12-13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2)
	14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2)
일곱 대접	15-16장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3)
	17-18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3)
	19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3)

요한계시록에는 7장과 같은 내용이 세차례 나옵니다. 7장에서 한번 나오고 14장과 19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똑 같은 장면들이 반

복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보다는 14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14장보다는 19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똑 같은 세상에 임할 크고 두려운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곱 나팔’을 읽을 때 ‘일곱 인’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일곱 대접’을 읽을 때 ‘일곱 나팔’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나팔에 대하여

1) 첫째 나팔

“[계 8: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

더라 [계 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
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
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드디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
예비하더라’는 말은 <헤토이마조>의 부정과거 능동태로서 천사들이 주
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팔은 순차적으로 불어졌습니다. 각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이 땅에
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처음 네개의 나팔은 자연계를 향해 재앙
이 임하였지만 나머지 세개의 나팔은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처음 네
개의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땅에 그러한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녕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재
앙으로 인해 땅의 1/3 이 타버리고 수목의 1/3 도 타고 각종 푸른 풀
도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2) 둘째 나팔

”[계 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계

8: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둘째 나팔이 불 때에 바다의 1/3 이 피가 되어 바다 생명체의 1/3
이 죽고 선박의 1/3 이 깨어졌습니다.

	재앙	재앙이 임했던 이집트의 신들	관련성구
1	물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Khnum) 하피(Hapi)	출 7:14-25
2	개구리	부활과 다산(多産)신 헤크트(Heqt, 크눔의 부인)	출 8:1-15
3	이	흙의 신 셉(Seb), 곤충의 신 케퍼(Kheper)	출 8:1-15
4	파리	파리의 신 바알세불(Beelzebub, 에그론 도시도 이 신을 섬겼다)	출 8:20-32(마 12:24)
5	가축의 악질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Apis, 내세를 약속했다)와 므네비스(Mnevis),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Hathor)	출 9:1-7
6	독종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Thoth)	출 9:8-12
7	우박	창공의 여신 누트(Nut), 대기(大氣)의 신 수(Shu)	출 9:13-35
8	메뚜기	곡물의 신 셋(Seth)	출 10:1-20
9	암흑	태양의 신 라(Ra), 태양의 여신 세케트(Sekhet)	출 10:21-29
10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Isis), 지상의 태양신 바로(Pharaoh)	출 11:4-12:30

3) 셋째 나팔

“[계 8: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계 8:11]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이 불 때에 강들과 샘물의 1/3 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 넷째 나팔

“[계 8: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 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넷째 나팔이 불 때에 해와 달의 1/3 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한결같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은

모두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재앙 또한 우상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나팔 때 임하는 재앙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재앙입니다. 마귀의 본거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땅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근거지가 되는 땅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때 임하는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다는 악한 세력이 득실거리는 곳이며 사람들은 바다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 우상들에 대한 재앙인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물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벌하시기 위해 물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빛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벌하시고자 빛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재앙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의 조짐은 이미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1/3 이나 되는 광범위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 맞은 자들을 다 모을 때까지는 잠시 기간이 남아 있겠으나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섯째 나팔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 9: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계 9: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 내용이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네 가지 재앙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가지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기간은 저들이 충분히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치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마음껏 이 세상에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곳으로부터 황충이 땅 위에 나올 것입니다. 황충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 다. "...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3절 하).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수풀과 수목을 송두리채 먹어 치우는 무서운 곤충입니다. 이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저들을 통해 수많은 인간이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9: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9: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계 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황충에게 이르시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4
절)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
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
는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줄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
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고통을 당해
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땅도 고통을 당해야 하고 저들 스스
로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 전에 하나
님의 인 맞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이십니다. 인 맞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풀과 수목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충이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당하는 고통이
어찌나 큰지 저들 스스로 죽고자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들 스
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되 죽음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
맞지 않는 자들의 당하는 기간을 ‘다섯 달 동안’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는 문자 그대로 다섯 달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짧은 기간
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은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황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계 9: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계 9: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계 9: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계 9: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황충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마치 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러한 황충의 모습은 실제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매우 지혜롭고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이 씌어졌다는 것도 저들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할 때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요한은 황충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 털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긴 머리털은 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손의 힘이 긴 머리칼에서 비롯된 것처럼 저들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을 마

음껏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계속해서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자의 이처럼 생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저들의 날개소리는 거대한 말들의 말굽소리처럼 들렸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황충에게 부여된 권세가 지극히 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황충이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 여섯째 나팔

“[계 9: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계 9: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계 9: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계 9: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

하나라 [계 9: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되
라”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하고 있었던 네 천사가 놓임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13-14절).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결코 여섯째 나팔은 불어질 수 없습니다.

이 네 천사는 이 땅의 사람 중 1/3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15절).

성경은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수가 “이만 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억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라기 보다는 그 수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네 천사의 군대가 이 땅의 사람 중 1/3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마병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갓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17절).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모습이 자주빛과 유황빛을 띄면서 그 홍갓에서 불빛이 나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 모습인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병대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진 불과 유황을 연상케 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1/3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18절).

사도요한은 마병대의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19절). 이러한 모습은 언뜻 전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들의 꼬리가 '뱀같다'는 것은 저들이 사탄의 일을 행하는 무리들임을 알게 해 줍니다.

"[계 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 9: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병대의 공격에 의해 이 땅의 사람 1/3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왜 저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충분히 저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재앙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으며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울테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며 큰 복입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

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
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섯째 나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
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도 더
럽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성도를 찾으시기 위해 천사
를 통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십니다. 하지
만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 구원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은 헬라어 <나오스>인데 이는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제단'은 성소 앞에 위치한 '번제단'이나 '분향
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성
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성전을 통해 밀과 가라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전에는 오
직 '이기는 자'만이 거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척량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에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
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

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거하시며 성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며 사도요한의 갈대는 이러한 자를 척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갈대로 척량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들은 '가라지'로 척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로 구분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은 천국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천국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은 성도인 우리들 자신이며 성도가 함께 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계 11: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 11: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 11: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 11: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은 곧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

배하는 참경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 증인은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삼 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 속에 들어갑니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11절). 이는 마치 하나님의 '생기'가 흠으로 빛은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아담이 '생령'(Living Being)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12절 상). 두 증인이 죽음에서 살아나 하늘로 들리어 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리어 올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두 증인은 곧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의 1/10이 무

너지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철천이라...”(13절 상).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리워 올려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13절 하).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고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가 바로 여섯째 나팔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둘째 화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나팔의 징조는 곧 둘째 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 일곱째 나팔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 11: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그 동안 여섯 나팔이 불어질 때에 이 땅은 수많은 재앙들로 황폐해지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재앙들이 모두 끝이 나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왕 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5절 하).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16절). 이러한 이십사 장로들의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계 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온 백성과 천사와 이십사 장로들이 주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부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대접에 대하여

1) 첫째 대접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 16:2]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마지막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형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재앙이 '대접'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재앙이 부어지는 듯한 형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모든 재앙들이 마귀의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에 의해 내려진 일곱가지의 재앙을 살펴 보면 모두다 마귀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헌데'는 헬리어 <헬코스>로서 '독종'이나 '악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애굽에 임하였던 여섯번째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대접의 재앙이 '헌데'라는 것은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 둘째 대접

“[계 16:3]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바다가 피 같이 변하게 되는 재앙은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은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해 하수의 모든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출 7:20-21).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둘째 나팔의 재앙 때에 바다 피조물 가운데 1/3에 임하였던 것에 비해 둘째 대접은 모든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둘째 나팔 때에 임한 1/3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대접의 재앙 역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피 같이 변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순식간에 이뤄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긴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일 것이며 주님의 재림에 의해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3) 셋째 대접

“[계 16:4]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계 16: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 16:6]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 16: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애굽의 나일 강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재앙과 같습니다(출 7:17-21). 셋째 대접의 재앙은 셋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셋째 나팔 재앙 때는 1/3의 물이 쓰게 되었을 뿐이지만 셋째 대접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아 헤맬 것이며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 변한 물조차 마시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까닭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6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귀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을 저들 스스로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갚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듯이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4) 넷째 대접

"[계 16:8]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 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의 재앙은 해가 불로 변하여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넷째 나팔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1/3 잃어버리는 재앙인 반면에 넷째 대접 때는 해가 불로 변하여 사람을 태우는 재앙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팔의 재앙이나 대접의 재앙 모두 마귀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때의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여서 주로 이 세상의 1/3에 해당되는 부분만 재앙이 임하도록 하였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대접 때의 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나팔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반면에 대접 재앙 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다보니 다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곱 대접 재앙 역시 그 대상은 마귀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5) 다섯째 대접

“[계 16:10]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계 16:11]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
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부어졌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짐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애굽에 내린 아홉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출 10:21-29). 하나님께서 애굽 때에 빛을 없애시고 암흑만 있게 하신 것은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이 빛을 잃어 버리고 암흑으로 덮혀진 이유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재앙으로 쏟아진 암흑의 재앙이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을 정도였습니다. “...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10절). 그런데 놀라

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11절).

'하나님을 훼방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훼방한다'는 헬라어 단어 <블라스페메오>는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값을 '신성모독'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훼방하다'란 단어는 성령을 훼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진작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미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회개치 않는 까닭은 저들이 지은 '신성모독'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성모독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죽은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말을 주장합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으며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질 때 저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다하는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 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6) 여섯째 대접

“[계 1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

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5]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마른 강물 땅을 통과하여 서방의 왕들과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14절 하). 사탄은 이미 자신의 멸망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든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에서 '유브라데 강'이 등장하듯이 여섯째 나팔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다만 여섯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이 세상 사람 1/3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질 때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미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의 집요한 성격은 그가 '사탄'임을 증명해 줍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날에도 집요한 성격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가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통해 귀신의 영이 나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케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의 영은 사탄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13절). 귀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세상의 임금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14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아마겟돈’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 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16절). ‘아마겟돈’의 원래 히브리 음역은 <하르 므깃도>입니다. <하르>라는 단어는 ‘작은 산’이라는 뜻이므로 <하르 므깃도>는 ‘므깃도 산’을 가르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아겟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므깃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다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명사형으로 고칠 때 <가다드>라는 단어 앞에 <마>라는 접두어를 붙어게 되어 <마게드>가 되는데 이는 “군사를 소집하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접미어 <오>를 붙여 <마게돈>이 되면 이는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장소가 실재 장소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

과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이뤄집니다.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할만한 장소는 어느곳일까요? 그곳은 어느 한 지역이나 장소가 아닌 보다 폭 넓은 공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이미 바벨탑 때부터서 하나로 뭉치려는 작업이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난 이후 줄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온 집중을 다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탄은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창 6-9장) 사건으로 인해 애써 길러 놓은 이 세상 대적자들이 한꺼번에 몰상 당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니므롯'이라는 이 세상의 영걸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바벨에 탑을 세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세우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함께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흠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을 온 세상 지면에 흠으셨던 것입니다.

“[창 11:1]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5]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창 11: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추진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또 다시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하면서 다시는 흠어지지 말 것을 다짐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과학과 문명을 이용하여 매우 신속하게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이 이미 말랐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서방의 왕들과 신속하게 만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루만에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과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아주 신속하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이라는 과학 기술을 통해 한 날 한 시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7) 일곱째 대접

“[계 16:17]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계 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계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계 16: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공기'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좃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17절 하).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곱째 대접을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 되었다..."(17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 고넨>으로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재앙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은 이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주님은 일곱째 대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 재앙의 끝은 곧 사탄의 멸망이며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

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18절 하).

그 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의 도시가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세상에 떨어져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60~100파운드(대략 30kg~50kg)정도입니다. 우박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경배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 끝하나 다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사건별 설명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일곱인 (계 6:3) 일곱나팔 (계 8-11장) 일곱대접 (계 15-16장)	마귀세력 심판 (계 17-18장) (계 20:1-3)	첫째부활 & 복천년 (계 20:1-6)	곡과 마곡의 전쟁 (계 20:7-10)	부활 & 백보좌 심판 (계 20:11-13)	거룩한성 (사레우살렘) 천국 (계 21-22장)
					지옥(불못) (계 20:14-15)

인 판 책	첫째인 흰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이 없어지고 점점 사탄의 활동에 의해 더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계6:2).	
	둘째인 붉은 말, 세상을 전쟁으로 화평을 재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계6:3-4).	
	셋째인 검은 말, 경제적인 공황으로 더욱 세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계 6:5-6).	
	넷째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고 강력해짐으로써 세상의 25%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계 6:7-8).	
	다섯째인 사탄으로 핍박 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계 6:9-11).	
	여섯째인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계 6:12-17).	
	사탄의세력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계 7:1-3).	
	인맞은백성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계 7장).	
	일곱째인이 떠어질때 일곱 나팔이 울려대신다	첫째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세상의 1/3을 태워버린다(계 8:7). 둘째나팔 불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피로 만들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의 1/3이 죽고 부서진다(계 8:8-9). 셋째나팔 햇빛같은 큰 벌(쑤이)이라고 불리움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1/3의 물이 쓰게 된다(계 8:10-11). 넷째나팔 해, 달, 물의 1/3이 어두워져서 낮의 1/3이 빛을 잃는다(계 8:12). 다섯째나팔 무지개 열쇠를 받은 벌이 떨어지고, 황충들이 다섯달동안 사람들을 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계 9:1-12). 여섯째나팔 네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인류의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계 9:13-21).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중에서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계 11:1-14). 사탄의세력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한다(계 12-13장). 인맞은 백성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4,000명이 시온산(거룩한성)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계 14장).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일곱대접이 부어진다	첫째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역병이 생기는 재앙이다(계 16:1-2). 둘째대접 대접이 바다(지중해)에 쏟아지니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계 16:3). 셋째대접 강들과 물은 피로 변했다.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먹도록 했다(계 16:4-7). 넷째대접 대접이 해에게 떨어지는데,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나 사람들이 화개하지 않는다(계 16:8-9). 다섯째대접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자 자들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훼방하고 화개치 않는다(계 16:10-11). 여섯째대접 유브라테강이 마르고 아라갯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계 16:12-16). 일곱째대접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번개, 뇌성, 지진, 우박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킨다(계 16:17-21). 사탄의세력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사탄의 무리(사탄, 짐승, 거짓선지자)가 불감침을 받아 유황불못에 떨어진다(계 14:14-30, 계 17장, 계 19:11-21). 주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1000년 동안 무지갱 속에 가둬둔다(계 20:1-3). 인맞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거룩한 제마포를 입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한다(계 19장).
첫째부활과복천년	주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사탄이 무지갱에 갇히고(천년) 복천년이 이뤄진다(계 20:4-6).	
곡과마곡의 전쟁	복천년이 끝날때 잠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은 백성을 미혹하며 '곡과 마곡'간의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원히 물속에 떨어지게 된다(계 20:7-10).	
부활과 심판	모든 사람, 사탄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0:11-15).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땅(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성이 내려온다(계 21:1-2). 거룩한성은 12진주문이 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명수가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다(계 21-22장). 거룩한성에는 성전이 없으나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서 천국백성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계 21:3-4).	



6 장

/

짐승의 표
누가 받는가?

짐승의 표, 누가 맞는가?

이처럼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 뛰어난 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마귀가 상대할 분이 아니심을 마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항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세상에서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의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때가 되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계 13:16)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계 13:17)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살 수도 없으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를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출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나 준비 자세를 갖추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시대에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주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짐승은 이미 이 세상에 있으며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3)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마 24:9)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마 24:10)할 것입니다. 이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할 우리를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666의 의미는?

“[계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

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17절).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리켜 '육백육십육(666)'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입니다. "...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17절 하). 또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18절 하).

이곳에 언급된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자면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입니다.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나온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표가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받는 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는 자는 그의 주인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이는 천국의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666'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폭 빠져 살아가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666'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결코 '666'표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이마에는 '666'표가 찍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자신의 이마에 '666'표가 찍혀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은 그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교회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666'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은 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666'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촛대는 7개입니다. 가운데 촛대는 다른 6개의 촛대에 비해 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촛대가 6개만 있어도 빛을 낼 수 있습니다. 6개의 촛대나 7개의 촛대나 빛을 내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촛대가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촛대가 없으면 불완전한 촛대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빛이 화려하고 밝을지라도 의미없는 빛이며 그 빛은 어둠과 같은 빛입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함

께 할 때 불완전한 빛은 완전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등대 촛대가 7개인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666'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666'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666'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찍혀지고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7 장

/

재앙 집행자
마귀

재앙 집행자, 마귀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사탄이 세상의 재앙을 내릴만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합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누구인가?

'큰 용'은 곧 '옛 뱀'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은 곧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용(drag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짐승인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신화에서 악마

를 가리킬 때 주로 '용'이나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어 떨어질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의 세력들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서 하늘에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마귀는 왜 하늘에서 쫓겨 났는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교만'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같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
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듯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으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커져가는 교만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사는 마귀를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사 14:1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 별(Morning Star)을 뜻합니다.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사역자인 릭조이너가 인도하는 사역단체 이름

이 바로 '모닝스타(morning star)'입니다. 이처럼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매우 귀중한 존재를 알리는 이름이요 새벽별처럼 밝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계명성이라고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계 22:16)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새벽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벽별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누구라도 멸망시킨다

이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를 향하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마귀가 참으로 아름답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천사였지만 그의 인생은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사 14:11)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마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잘못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 스스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타인이요 환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되었을거야”라고 말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잘 되었을텐데”라고 즐겨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 스스로 하나님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고 마귀의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후

마귀의 최후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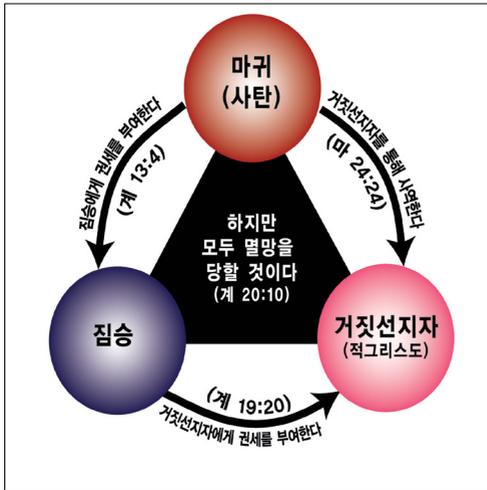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주님께서서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붙잡아 천년동안 무저갱 속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잠귀 인봉하고 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동안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이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분노를 참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마귀는 조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귀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잠시 무저갱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는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계 20:7-8)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파하시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계 20:10)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유황 못에는 마귀 뿐만 아니라 마귀를 섬겨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계 20:10)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마귀 또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짐승과 거짓선지자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계 19:20)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귀도 똑 같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역을 하시지만, 삼위일체 마귀는 인간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것처럼, 짐승도 마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계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사역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소위 ‘짜퉁’이라고 불리우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짜퉁인 아름다운 술집여자를 진

품인 아내와 자리를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네주는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두 가짜 여자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귀의 모조품이 진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성도는 이단시비에 걸리고 마녀 사냥감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사업 처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더러운 곳이지만 오히려 사탄은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러운 세상으로 달려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을 대신하게 합니다.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도요한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 대해 사도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다니엘서 2장

바벨론제국
(BC626-539)

메대/바사제국
(BC539-331)

헬라제국
(BC331-63)

로마제국
(BC63-AD476 서로마)
(BC63-AD1453 동로마)

열국시대
(AD476-세상끝)

하나님나라
(세상끝-영원)

다니엘서 7장



사자



곰



표범



짐승



열국



천국



금

은

놋

철

철/진흙

돌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1절).

짐승의 뿔은 10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면류관이 뿔에 씌어졌다는 점입니다. 사탄에게는 면류관이 머리에 씌어졌습니다. 이는 사탄이 짐승의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뿔에 면류관이 씌어진 것은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사탄(용)은 짐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2절 하). 하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2절 상). 사도요한이 보았던 세 짐승은 다니

엘이 보았던 짐승과 같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도요한처럼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과 사도요한이 바라봤던 짐승들은 모두 '짐승'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짐승은 '사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곰'처럼 그 힘과 능력이 강할 것이며 '표범'처럼 그 무자비함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3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짐승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설명할 때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와 다니엘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짐승들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것이지만 다니엘은 짐승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시대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순서는 가장 먼저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곰'이고 세번째는 '표범'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언급된 짐승은 '철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자'로 표현될만한 나라를 '바벨론제국'이라 말하고 있으며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바사제국'이며 '표범'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헬라제국'이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철과 같은 짐승'은 '로마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휘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영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의 생각처럼 각각의 짐승이 대표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고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짐승들의 활동은 그렇게 대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 퍼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은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의 악이 지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짐승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제국'과 '바사제국',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제국'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언급된 4개의 제국 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동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제국들에서도 짐승의 흔적은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대한 생각을 보다 폭 넓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계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도요한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땅'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기이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듯이 짐승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짐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그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굳건하게 일어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으며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듯이 끝까지 죽지 않고 견디며 더욱 강인해지는 짐승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더욱 존경하고 신뢰하여 마침내 경배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짐승은 그 전문성을 대를 이어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말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위대한 왕이 사라지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끈질긴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강하게 살아나는 짐승의 모습은 사람의 밟에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살아나는 잡초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전문성은 시대를 거듭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마치 죽은 것 같았으나 또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

라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탄에게도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도 경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아버지를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천국을 흉내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흉내를 내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며 결코 짐승은 그것까지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개월은 3년 6개월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짐승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짐승 역시 이 세상이 창조 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

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휘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휘방하더라"(6절). 짐승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휘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휘방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짐승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를 핍박할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7절).

짐승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저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을 경배할 뿐입니다.

거짓선지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 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

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 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도요한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양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11절 하). 그의 모양이 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용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사탄과 하나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포함하여 사탄은 바다의 짐승과 더불어 삼위일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사탄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12

절 중). 그는 짐승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13절).

거짓 선지자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데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15절 하).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 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17절).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꾀는 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욕'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혀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욕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정욕'을 많이 추구하며 성취한 사람들을 가장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욕'을 추구하며 살 때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정욕'을 통한 유혹은 매우 자극적이며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당했을 때 그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으며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속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그 '욕심'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죄를 짓게 하였을 때 아담은 불사불멸의 몸에서 필사필멸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죽음을 당하도록 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정욕'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옴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옴이 그렇게 큰 고난을 겪은 것은 마귀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옴 1: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요한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추악한 행위를 참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저들을 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저갱에서 천년동안 지내야 할 것입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
릇 하니”

짐승의 멸망

“[계 17: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계 17:8]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계 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 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계 17: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사도요한이 사탄에 대해 기이히 여기고 있을 때 천사가 “왜 기이히 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7절)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 비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짐승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따를 짐승이었습니다.

천사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 그 비밀을 말해 주었는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며 그것은 일곱 왕이었습니다. 천사는 "...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10절)고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일곱 머리는 어느 특정한 일곱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을 말합니다. 그 수가 '일곱(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도 완전수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이처럼 완전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완전수를 사용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완전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는데 완전수를 사용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수에 대한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흉내를 냈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왕 중의 '다섯은 망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망해버린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있고'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왕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

안 계속하리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생겨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11절 상)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미 사라졌던 왕이 또 다시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시 생겨난 왕의 모습이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망해버린 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뜻은 이미 그가 일곱 왕 중에 속해 있었던 자고 예전에 있었던 왕과 하는 짓이 너무나 똑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이 생겨날지라도 여전히 '일곱 왕'이 되는 것은 '일곱 왕'이라는 숫자가 특정한 왕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짐승의 '일곱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계 17: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계 17: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 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천사는 계속해서 짐승의 '열 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12절)라고 말하면서 그 열 왕은 "...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앞으로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열 뿔'이 '열 왕'이라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일곱(7)'이 '천국의 완전수'라면 '열(10)'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일곱(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열(10)'은 '사람의 완전수'입니다. 10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열(10)'이라는 숫자가 사탄에 의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왕들의 숫자로 완전수가 됩니다. 좀 전의 '일곱(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완전한 계획이라면 '열(10)'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둘 다 완전수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완전수'와 '인간의 완전수'로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추종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추종 세력은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13절). 이러한 '열 왕'의 짐승에 대한 충성심은 마치 24장로들을 연상케 합니다. 24장로들이 주님보좌 앞에 자

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처럼 '열 왕' 역시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훔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짐승을 도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전쟁은 이들과의 전쟁이며 당연히 주님은 "...만군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를 이기실..."(14절)것입니다.

"[계 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 17: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계 17:18]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음녀가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이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음녀가 하나님의 것을 훔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탄은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사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참으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 사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에 사탄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17절 상).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짐승과 그의 무리는 사탄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항상 또 다른 악한 자를 제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탄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음녀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 벌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16절). 결국 음녀는 자신을 따르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실제로 사탄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 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탄의 삼위일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짐승이 사탄을 물어 뜯고 거짓 선지자가 사탄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모습은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성경은 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8 장

/

마귀와의 전쟁

하늘의 전쟁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
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 중에
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Morning Star)'으로 불리웠습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
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새벽별'을 뜻하며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
다. 예수님의 이름도 '계명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
(the bright Morning Star)'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피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로 전
쟁을 일으킨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사탄은 자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존재다
보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교만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하나
님과 견주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
리라 하도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고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게 됩니
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
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누구라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

사였지만 교만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 14:11]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전쟁에서 패한 마귀

마귀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군은 미가엘이었습니다. 미가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해석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단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

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또한 미가엘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주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단 10:12]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검비케 하기로 결심 하던 첫 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단 10:13]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유다서에 등장합니다. 그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 사탄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가엘이 권위와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 1: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휘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은 하나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가장 중심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적하여 용(사탄)의 사자들이 싸웠습니다. '용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용(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된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자기 지위'라는 말은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요 1:1)라는 뜻이며 '정사'(엡 6:12)라는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원래 누리던 지위를 버리고 사탄을 떠나 결국은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후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하늘에 거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 그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에 의해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도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계 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친구를 잘못 만나도 신세 망치는 법인데 하물며 사탄(루시퍼)을 따랐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타락한 천사들은 용(사탄)과 함께 이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
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끊임없이 귀신들은 온 세상을 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꾀는 자
입니다. '꾀다'는 것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
께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각종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서 유혹합니
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을 때 그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귀신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

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
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
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재앙 중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
납니다.

“[계 1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
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
라”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질 때 강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통과하여 서방의 왕들과 하나
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함입니다.

“[계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저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나
오는데 곧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영이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
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방해하기 위한 전쟁입니
다. 첫번째 전쟁인 하늘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계속해
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멸하기 위함 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마귀 를 멸하는 것이 주님의 행하실 사명이었습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 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2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간의 2차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 하여 싸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아마겟돈'입니다.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 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의 원래 히브리 음역은 <하르 므깃도>입니다. <하르>라는 단어는 '작은 산'이라는 뜻이므로 <하르 므깃도>는 '므깃도 산'을 가르 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므깃도'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대로에 자리잡고 있어서 전략적 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락과 드보라는 시스라와 그 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삿 5:19-21). '아마겟돈'이 '므깃도 산'이란 뜻

이지만 실체는 산이 아니라 평야입니다. 이는 전쟁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연합 기구가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한 준비도구입니다. 에큐메니칼 종교단일주의 운동 또한 사람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해 더욱 사람 모으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로만 외국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2차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일곱번째 재앙이 '공기' 중에 쏟아집니다.

“[계 16:17]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공기'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진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들려오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의 도시가 무너질 것입니다.

“[계 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
더라

[계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
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계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떨어져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
다.

“[계 16: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
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
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대략 30-50g 정도되는 우박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쇄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풀려납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왕국이 복천년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무저갱에 천년동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오늘날에도 마귀의 세력이 없는 곳은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곡과 마곡 전쟁은 백보좌 심판 받기 직전에 일어난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심판대에 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미 마귀는 두차례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전쟁을 치렀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는 러시아, 유럽, 터키, 이란, 에디오피아, 수단, 리디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곡 땅의 곡이란 왕에 의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곡이란 왕이 서방 나라들과 아프리카 나라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일제히 공격할 것입니다.

”[겔 38: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

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겔 38:3]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겔 38:4]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겔 38:5]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 내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옛날 ‘하만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하만이 누구입니까? 구약성경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악한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킬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만의 음모에 맞서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녀는 왕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그로 인해 하만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음모로 인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결과

마곡을 돕는 나라는 바사(이란), 도갈마(터키동부), 고멜(유럽), 붓(리비아), 구스(에티오피아,수단)입니다.

“[겔 38:5]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 내리
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겔 38:1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곡이 이스
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겔 38:19]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

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겔 38: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칼로 서로를 죽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온역과 피로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내리실 것입니다.

“[겔 38:21]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겔 38:22]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 순식간에 도시를 멸망시킨 것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 20: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

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 서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선지자를 불과 유향 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선지자는 불과 유향 못에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향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9 장

/

천국의 성전

이 땅의 성전과 천국의 성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전'과 '장막'이라는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은 그 본질과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늘의 장막과 성전의 차이

성경에서 '성전'과 '장막'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뉘앙스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네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기록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동거하시는 공간이 바로 장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도 나타나듯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출 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반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naos)라고 표현되며, 주로 건물적이고 외형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이를 사용해 하늘에 있는 외형적 성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만나시는 공간은 이 '나오스'가 아니라 '스케네', 즉 장막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머무는 곳은 외형적이고 장식된 성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장막의 역할

하나님의 장막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장막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스케네’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정 안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단지 목회자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단순한 ‘나오스’, 즉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스케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막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 장막에는 오직 하나님과 성도만이 거할 수 있으며,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전과 성막에는 이방인도 드나들 수 있었지만, 하늘의 장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은 에스겔 성전-즉 천국의 성전-안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거룩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장막은 단지 천국에서만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의 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던 성전들과 하늘의 성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형태의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포로 귀환 이후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외형적인 구조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하늘의 성전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다윗의 휘장, 에스겔 성전, 그리고 천국의 장막은 모두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서, 외형보다 영적 실체가 중심이 됩니다. 이 천상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만이 함께 하는 공간이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구조물이 아닙니다.

천국의 장막의 능력

하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은 단순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능력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며, 성도는 그 장막 안에서 놀라운 영적, 육적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막은 단지 피난처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 생명과 만족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입니다.

장막의 효력

천국의 장막에는 인간 존재 전체-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평안 그 이상입니다.

“[계 7: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먼저, 배고픔이 없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결핍의 해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과 영혼의 허기를 완전히 채우는 충만함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고통이나 애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영혼 깊은 곳의 결핍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음으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단지 갈증 없는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방황하거나 목말라 찾지 않아도 되는 혼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만족이라”고 하였듯,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이 장막 안에서 완성됩니다.

“[딤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한, 상함이 없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는 어떤 고난이나 해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장막은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습니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눈물은 억울함과 상처, 억압과 슬픔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원수를 갚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장막은 억울함이 해결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사 61: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장막은 단순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대화하는 살아 있는 교제의 장입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장막에서 흐르는 생명수

하늘의 장막은 그 자체로도 복된 곳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숨결과 같아서, 그 물줄기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변화되며, 기쁨에 넘칩니다.

먼저, 생명수는 영을 숨 쉬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5-26절에서 하나님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수는 묶인 심령을 풀어 주고,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생명수는 영혼을 활동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수는 정체된 영혼을 깨우고, 안에서부터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엇보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9 절에서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힘 없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히 느끼게 하며, 그분의 말씀과 숨결을 따라 함께 걷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천국의 장막의 능력

하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은 단순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능력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며, 성도는 그 장막 안에서 놀라운 영적, 육적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막은 단지 피난처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 생명과 만족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입니다.

장막의 효력

천국의 장막에는 인간 존재 전체-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평안 그 이상입니다.

“[계 7: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먼저, 배고픔이 없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결핍의 해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과 영혼의 허기를 완전히 채우는 충만함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고통이나 애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영혼 깊은 곳의 결핍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음으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단지 갈증 없는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방황하거나 목말라 찾지 않아도 되는 흔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만족이라”고 하였듯,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이 장막 안에서 완성됩니다.

“[딤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한, 상함이 없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는 어떤 고난이나 해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장막은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습니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눈물은 억울함과 상처, 억압과 슬픔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원수를 갚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장막은 억울함이 해결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사 61: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장막은 단순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대화하는 살아 있는 교제의 장입니다.

“[계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장막에서 흐르는 생명수

하늘의 장막은 그 자체로도 복된 곳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숨결과 같아서, 그 물줄기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변화되며, 기쁨에 넘칩니다.

먼저, 생명수는 영을 숨 쉬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5-26절에서 하나님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수는 묶인 심령을 풀어 주고,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생명수는 영혼을 활동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수는 정체된 영혼을 깨우고, 안에서부터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엇보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힘 없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히 느끼게 하며, 그분의 말씀과 숨결을 따라 함께 걷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창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
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천국의 장막이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의 장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의 과정과 영적 추수, 심판, 그리고 새 창조의 질서가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난과 진통을 동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고,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되는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장막의 회복

천국의 장막이 세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장막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행 15: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암 9: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단순한 역사적 복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을 예표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아모스 9:11). 그 장막에는 웅장한 외형이나 복잡한 제사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성도,

찬양과 예배만이 존재했습니다. 다윗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언약궤가 장막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에, 다윗의 장막은 사실상 지성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임을 선언합니다. 이 성전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며, 세상의 가치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대추수와 장막의 완성

천국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추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인자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 있고, 곡식이 다 익었기에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니다(계 14:14 - 16). 주님은 그 낫을 휘둘러 이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 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 비유가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구원의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계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계 14: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계 14: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지만 이 대추수는 기쁨의 수확일 뿐 아니라, 엄중한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이후에는 땅의 포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 14: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즙틀에서 짜여 나온 피가 말 굴레에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 즉 약 300km에 걸쳐 퍼지는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미칠 것임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1,600이라는 수는 세상 사방(4)과 완전한 심판의 수(400)의 곱으로, 심판의 보편성과 철저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추수는 곧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드리는 자는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마귀 집단의 멸망

장막이 세워지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집단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 곧 마귀의 세력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며 살육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처럼 성도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피를 마심으로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계 17:6). 이는 극단적인 대조이며,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 그들이 얼마나 성도를 미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계 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그의 계획 아래 두십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열 벌로 하여금 마귀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그들 스스로 음녀를 멸하게 하십니다(계 17:16 - 17).

“[계 17:16] 네가 본 바 이 열 벌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 마귀는 스스로 쌓은 권력으로 멸망당하고, 그를 따르던 세상의 세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 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며(계 19:20), 마귀를 따르던 왕들과 장군들, 부자들과 자만하던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고 멸절당합니다(계 19:17 - 18).

“[계 19: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계 19: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장막이 회복될 때 성도의 모습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날, 세상은 탄식하지만 성도는 기뻐합니다. 바벨론성, 즉 마귀의 도성이 무너졌을 때, 그 도시에 소망을 두고 살던 자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통곡합니다(계 18:19).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합니다.

“[계 18: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환호합니다(계 18:20, 19:1). 마귀의 멸망은 곧 장막 회복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계 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계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계 15:5).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써,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릅니다(계 15:3).

“[계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며 장막의 개문식입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막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적해석



10 장

/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는 '감춰졌던 원래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긴 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매우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666'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종말 이후에 신천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적인 내용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 전달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음을 한탄하셨

습니다.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았지만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며 그릇된 지식만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더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참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증거자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였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마르튀리아>로 ‘증언’,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거자는 <마르튀스>입니다. 그런데 ‘증거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martyr’란 단어가 <마르튀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증거자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순교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자만이

순교자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자도 순교자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자도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는 자만이 증거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자신의 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에이도>인데 이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인식하다', '감지하다', '생각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충분히 인지되고 감지되고 경험된 사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거나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에이도>입니다. 이러한 <에이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똑같이 '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천국의 때이지만 <크로노스>는 세상의 때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적인 공간에 묶여 살아갑니다. 때가 되어 태어났고 때가 되니 죽습니다. 때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때가 되어 대학에 들어갑니다. 때가 되니 결혼하게 되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삶이 세상의 '때'에 의해 이루어진 삶인데 이는 <크로노스>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적 개념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달라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10년은 정확한 10년입니다. 9년이 될 수도 없고 11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10년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개념과 달라서 1년이 10년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한 달이 10년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개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천국의 공간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

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천국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시간은 결코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천국의 개념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병들어 고통 당한 시간이 10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면 1년으로 짧아질 수 있으며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이 행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고난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결코 고난스러운 일을 고난스럽다 여기지 않게 되며 슬퍼할 일을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부유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천국사람을 바라볼 때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유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들어 힘들어 할 모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픔 중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후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
니하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

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적인 개념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직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때(time)’은 언제가 있을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 읽을지라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읽는 자는 도무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개념으로 천국적인 개념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도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요한은 예언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은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당신에게 편지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요한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사도 요한을 시켜서 당신에게 편지를 띄우도록 하셨으니 당신은 마땅히 요한의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하나님"(4절)이십니다. '이제도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계셨다'는 말은

세상의 창조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요한은 그의 복음에서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장차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뜻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할

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구름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입니다.

“[마 26: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거하십니다. 스테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행 7:55]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아버지 외에 성령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요한은 성령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계심

을 표현했습니다. "...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4절).

이처럼 성령하나님은 주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일곱 영'이라고 언급한 것은 온 세상 가득히 충만한 성령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가리키며 천국의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하나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서 첫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금 오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계 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빛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은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아래 거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부요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육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아래 거하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산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의 피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의 피는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의 피는 악한 세력이 조금도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 줍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며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께 거하는 자는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를 위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도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는 천국의 개념이 짙은 '나라'를 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언급되고 있는 '나라'는 <에드노스>로서 이는 세상적인 개념의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할 때는 민족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인이라

고 불리우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나라가 결정되어지는데 비록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의해 우리의 거하는 나라가 정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백성이 아닌 '거룩한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또한 그 나라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로 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롬 8:29]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요한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구름타고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주님을 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

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의 재림을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과 기쁨의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 1:8] 주 하나님은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요한은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임을 밝혔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번째 글짜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짜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언급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 것은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강력한 증거의 말씀을 듣

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계 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요한은 “...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의’는 ‘예수 안에서’라는 뜻의 전치사 <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요한의 고백은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한 참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한 환난을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거하고자 하는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왕도 사도요한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고자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참습니다.

사도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당하는 환난의 십자가를 지며 기꺼이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은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밧모섬에 끌려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멜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아시아의 일곱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매우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과 매우 밀접한 동행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밧모섬에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밧모섬은 유배지입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극심한 악해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 하나가 바로 밧모섬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이 없는 한 그곳에서 풀려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요한에게 있어서 밧모섬은 별장이 아닙니다. 모처럼 피곤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피서지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밧모섬은 죽음의 끝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이었으며 숨 쉬기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요한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가장 충만한 성령의 감동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값진 성령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성령충만함은 그 누구도 쉽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가장 고통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당신도 사도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영적인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의 일곱교회로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곱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일곱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일곱교회'에 계시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밧모섬



밧모(파트모스, Patmos)섬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섬 중 하나이다. 소아시아의 카리아 서편에 있는 한 섬으로 밀레도 남쪽 약 56km 지점의 에게해 해안으로 현재의 파티노다. 남북이 약 16km, 동서 10km의 넓이의 이 섬은 바위와 화산으로 뒤덮인 조그마한 섬으로서 건축고 불모지와 같은 섬입니다.

로마시대에 밧모섬은 정치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사도요한 역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 밧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요하는 밧모섬에서 18개월동안 억류되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로 죽임을 당한 후에 풀려

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은 밧모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계 1: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계 1: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 1: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계 1: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사도요한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고 눈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와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요한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도요한처럼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깨끗할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사도요한처럼 보다 세세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20절).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가

라서에서도 일곱 촛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속 4: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
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하나님은 스가라에게 일곱 금촛대의 의미를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루 지켜 보고 계심을 뜻합니다.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이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촛대의 빛
이 어두움에 빛을 내고 사물이 보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속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계 1: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
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

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요한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뵈는 자는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도요한 역시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른손을 내미시고 사도요한을 만지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신랑되십니다. 신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랑을 그리워하며 신랑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되심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친구되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친구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 15: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사도요한에게 “...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17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8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둘째 사망’을 의

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은 '둘째 사망'에 거할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에 던지우더라”

“[계 1: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 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
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9절)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
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20절 상)고 설명해 주셨습니
다. 주님은 “...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
라”(20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별’과 ‘일곱 교회’의 뜻을 정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앞서 16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일곱 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땅
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의 자녀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일곱 별’을 ‘일곱 교회’에 보내
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며 또한 ‘일곱 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곱 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손에서 일곱 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음을 이해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 증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 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곱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일곱 별'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일곱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카이로스과 크로노스 / 카이노스와 네오스 비교

카이로스 & 크로노스 비교

헬라어에 '때(time)'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똑같이 '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천국의 때이지만 <크로노스>는 세상의 때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적인 공간에 묶여 살아갑니다. 때가 되어 태어났고 때가 되니 죽습니다. 때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때가 되어 대학에 들어갑니다. 때가 되니 결혼하게 되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삶이 세상의 '때'에 의해 이루어진 삶인데 이는 <크로노스>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적 개념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달라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10년은 정확한 10년입니다. 9년이 될 수도 없고 11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10년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개념과 달라서 1년이 10년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한 달이 10년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개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천국의 공간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천국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시간은 결코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천국의 개념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병들어 고통 당한 시간이 10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면 1년으로 짧아질 수 있으며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이 행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고난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결코 고난스러운 일을 고난스럽다 여기지 않게 되며 슬퍼할 일을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부유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천국사람을 바라볼 때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유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들어 힘들어 할 모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픔 중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후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카이로스 & 네오스 비교

<카이노스>는 <네오스>란 단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만 <카이노스>는 이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를 잘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의 '새(new)'는 <네오스>로 쓰여졌지만 '새 부대'의 '새(new)'는 <카이노스>로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새로운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새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새로운 것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11 장

/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곱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며 특별히 그 중에 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실질적인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기 보다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

에베소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라오디게아를 경유하여 에베소까지 동방의 많은 산물들이 집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역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미(Artemis) 여신상이 있어 이곳은 미신이 매우 성행했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매우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인데 '스트라테고이(Strategoí)'라는 독자적 행정관이 있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 기관으로서 '볼레(Boule)'라는 민회관과 순회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명목상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동안 머무르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에베소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실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2절 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에 쓰여진 단어는 <코포스>로써 이는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반한 ‘수고’였습니다. 또한 ‘인내’에 쓰인 <휘포모네>는 ‘아래’의 뜻을 가진 <휘포>와 ‘머물다’란 뜻을 가진 <메노>의 합성어로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악한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주님과 맺은 첫 사랑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내에 공공연하게 주님에 대해 부인하는 말을 하고 주님과 맺은 첫사랑에 대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교회 내에 주님과 의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그들이 에베소 교회 내에 존재하지 않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주님과 의 맺은 언약을 소홀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드러냈고 그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현혹되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들이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였으며 오직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인내와 수고는 참으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저들이 주님과 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버렸다'란 단어는 <아피에미>로써 이곳에서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치 짐승을 쫓아내듯이 사람을 쫓아내는 '내보내다'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화살을 멀리 쏘아서 화살을 버리는 듯한 느낌의 '버려두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뜨거운 헌신과 인내와 수고함이 특출했지만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함이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쪼개서라도 바칠 수 있는 헌신적인 성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성도들 중에는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헌신과 수고와 인내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이 첫사랑과 같지 않다

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함이 주님의 첫사랑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헌신과 수고보다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5절 상)고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하다'는 말은 <므네모뉴에>로서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첫사랑이 언제 잃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저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지라'란 말은 헬라어 <포이에오>로서 이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단어를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하시면서 "지금 당장에 행하라"는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 2: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네가 니

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6절 하).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일곱교회 중에서 특히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의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단 분파 중 하나입니다. 니골라 당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죄악된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한 '니골라 당'은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골라 당은 '주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님'이 없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님'을 없애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린 기독교는 전혀 기독교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을 채워 넣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들의 교묘한 수법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악한 세력의 수법에 의해 현혹당하여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계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7절 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교회'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는 성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신다는 뜻을 어떤 특정한 교회 지도자를 가리

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경우엔 그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중에서 담임목사가 이렇듯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는 식의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빼앗거나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뜻은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한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중에서도 거룩한 성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천국에 거하는 백성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계 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거룩한 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취하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계 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리”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8절)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죽었다가 살아나신’ 말은 <호스에게네토 네크로스 카이 에제센>으로 두개의 부정 과거 시제

서머나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대략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항구 도시로서 풍성한 교역지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대략 20-30만 정도였으며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의 '머'(mymh)는 '유향'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곳이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호모(homer)의 출생지였으며 학문과 과학과 예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방인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교적인 종교가 많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기독교가 덜 전달되었고 순수한 복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폴리갑의 생애'에 의하면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였다고 전해지며 사도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가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위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9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머나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 생활에 궁핍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쓰인 '환난'은 <들립시스>로서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러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궁핍'에 쓰인 단어 <프토케이아>는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뜻합니다.

이러한 서머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속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일찌기 그곳에서 자리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하였으며 그들의 핍박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심히 환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난과 빈곤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이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한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중으로 함께 당을 지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가리켜 '사탄의 회'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당을 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러한 '사탄의 회'에 의해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지역 사회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을 꾀하여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불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힌두교인'이나 '이슬람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오래 전에 자리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새로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해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 2: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10절 상)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머나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이 지극히 짧은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은 지극히 짧은 기간임을 말할 때 사용되는 셈어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서머나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받아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겠으나 그 시련의 기간은 지극히 짧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원어는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입니다. 여기서 ‘~하라’란 명령어로 사용된 <기누>는 <기누마이> 동사원형에서 나온 명령어로서 중간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충성하는 것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태’라는 것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중간태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도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간태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에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결혼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혼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중간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중간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중간태 인생입니다.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 먹기 보다는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는 나의 의지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중간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우리의 순종에 의해 중간태로 변화됩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중간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중간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 2: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11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궁핍함 중에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첫째 사망’을 면치 못합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지옥’에 거하게 되지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 2: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죄우

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이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 편지를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편지의 서두에 “...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으로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기원전 130년 경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문화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심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무역이 왕성하여 상업적으로 대표되는 도시인 것과는 사뭇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버가모에는 의학교가 있었는데 20여 마누건이나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그 당시 책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양피지 생산지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각종 서적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지식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발달되어 풍성한 문화를 누리는 도시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식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은 여러 우상 신전이 세워졌으며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날선 검'이라는 것은 매우 예리한 검을 뜻합니다. '검'은 곧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진리되는 말씀으로 버가모 성도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이 좌우로 날선 검과도 같아서 사람의 영혼육을 찢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니”

주님께서 이처럼 버가모 교회에 '날선 검'으로 다가서신 이유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 2: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먼저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살펴 보면 항상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저들을 칭찬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적절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셨는데 저들이 사탄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은 '안디바'가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주님은 이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말 중에서 '굳게 잡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크라테오>는 이곳에서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의 믿음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삶이 편안할 때에만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그 당시 버가모의 영적 지도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의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안디바가 불에 타 죽임을 당한 순간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저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나무처럼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 2: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24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은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이긴 하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그릇된 교훈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온 염병은 단순히 질병에 의한 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염병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 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이방인과의 교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은 백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타락도 싫어하실텐데 이방인과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성적인 염병의 근원이 되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을 색출하여 모두 목매어 죽였을지라도 성적인 타락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라는 단 한 거짓 선지자로 인해 죽은 사람만 24,000이었던 백성이 성적인 타락이 어떠한 맛이라는 것을 모두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적으로 타락한 부모들을 통해 수많은 자녀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성적인 타락

함이 이스라엘을 한없이 나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임을 당하였으며 2천 년 동안이나 나라없는 백성으로 설음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선 검'으로 오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케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퇴색하게 하고 변질케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은 곧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 지식적인 자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배운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은사자들입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거짓 선지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발람이 유능한 자가 아니었다면 모압의 발락 왕이 결코 그를 모압 땅으로 초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매우 알아주는 유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매우 좋은 조건으로 그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는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지극정성을 기울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이 곧 그를 니골라 당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였으며 더 많은 유명세를 탄 사람이었으며 백성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버가모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은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니골라 당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린 니골라 당 사람들을 붙잡고서 "왜 당신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제가요?"라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 교회에 헌신을 다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때문에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저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 가르쳤을까요? 저들의 가르침에는 인간적인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저들의 가르침에는 자연히 세상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 되는 모습을 감추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가르치는 잘못된 내용을 보면, 저들은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을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육체를 추한 것으로 여긴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지은 죄는 죄로 취급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지은 죄는 구원 받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꺼리낌없이 지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육신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저들의 가르침을 좋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니골라 당'은 곧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모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며 육신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섬기지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육신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육신을 '성전'으로 삼는다는 가르침이 저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성전이 되면 육신으로 마음껏 죄를 범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들로 인해 교회에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몸으로 봉사를 안 하려 합니다. 헌신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모임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은 모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가르침이 저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날선 검'을 들고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음이라. 너희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육신을 깨끗이 지켜 왔으며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였노라. 너희들에게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보이는 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졌으며 너희 죄를 위해 피를 흘렸음이라. 너희가 육신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너희의 영혼도 중요하지 않게 되리라.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육신이 깨지면 영혼도 담지 못할 것이라"

"[계 2: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니골라 당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16절 하).

우리는 '하나님의 검'으로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는 니골라 당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옛날의 발람이 다시 살아나 우리들의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니골라 당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의 검'을 집어 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비로소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들의 교회에 조금도 얼씬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계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

데..." 주님께서 주신 '만나'와 '흰 돌'은 우리 삶에 매우 귀한 복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굶주림이 없을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흰 돌'은 천국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흰 돌'에 새겨지듯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흰 돌'은 그 당시 연회장에서 초대외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초대장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흰 돌'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에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재앙을 막기 위해 흰 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흰 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흰 돌이 있는 자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천국 연회장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계 2: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편지 서두에 스스로를 가리켜 "...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18절)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두아디라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공업도시입니다. 이곳은 주전 190년 때부터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태양신 '아폴로'(Apollo)와 '아데미'(Diana), '삼바다'(Sambatha)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공업이 발달하게 된 동업 조합이 유명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이곳 출신이었던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워 이곳에 와서 전달하여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태양신 '아폴로'와 음행의 신 '이세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지만 주님은 그 태양신보다 더 밝은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동업이 발달된 두아디라 사람들이 청동업을 통해 벌어드린 돈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죄악을 경고하기 위해 빛난 주석(청동)과 같은 하나님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계 2: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매우 헌신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네 사업’이라는 것은 저들이 교회를 위해 행한 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청동업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입으로 교회를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19절 하). 이는 그만큼 두아디라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도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는 교회에서 크게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계 2: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 2: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계 2: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 2: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주님은 그런 훌륭한 두아디라 성도들을 책망하셨으니 그들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교회를 위해 뛰어난 헌신이 있고 성도들 간에 사랑과 섬김이 있고 인내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의 음행의 죄를 가려주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들의 음행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성이 아니라 습관적이며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저들의 음행의 죄에 대해 “회개하라” 경고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21절 상).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계속해서 음행의 죄에 빠져 살았습니니다.

주님은 그렇게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은 저들이 행음을 벌이는 침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침상’은 이세벨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사상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침상’에 던지시겠다는 말씀은 저들을 집어 던져서 침상을 깨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음을 행하는 자들은 행음을 행하는 침상에서 쪼개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행음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자녀들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23절 상). 행음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죽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행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음 때문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자녀가 죽는 것은 순전히 저들이 행음의 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행음의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음은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만 행음은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더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이뤄집니다.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사실 모든 죄가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음행은 우리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성경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죄와 음행의 죄가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더럽히게 될 때에 이는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

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모든 죄가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만 음행은 완전히 성전을 멸하는 죄입니다. 다시금 성전으로 하여금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성전을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음하는 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날에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뛰어난 헌신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 간에 사랑과 섬김의 자세가 있으며 삶가운데 인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행음하는 자들이라면 그 어떠한 좋은 것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헌신하지 않더라도 행음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형제를 미워하고 때릴지라도 해음만은 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지라도 행음만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당신이 주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계 2: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계 2: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 2: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 2: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계 2:29]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음행의 죄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깊은 유혹에서 빠져나와 행음의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주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서 여전히 사단의 깊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채 음행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깊은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채 음행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26절). 행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소중히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리

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존재하는 '만국'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땅에서 거느리는 자녀들보다는 훨씬 많은 자녀들이 존재함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창조능력과 연관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철장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27절 상). '철장권세'는 마귀의 악한 세력을 깨부수는 권세입니다. 이는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마귀의 악한 세력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장권세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주님은 "...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27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철장권세를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받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권세'에 이어 세번째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새벽별'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그 어떠한 복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12 장

/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 3: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다섯번째로 '사데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데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교회를 돌아보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 모두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만큼 주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데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1절 하)라고 심한 말로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데교회 성도

사데



사데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50k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사데는 두아디라 남동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은 터키에 해당됩니다. 사데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 고업과 양털 염색이나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으며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사데는 남쪽을 제외한 전체가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족한 물질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때문에 두 번이나 정복을 당하고 말았는데 B.C. 6세기 고레스(Cyrus)의 공격과 약 200년 후 안티오쿠스(Antiochus)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사데는 시벨리(Cybele) 여신을 섬겼으며 로마 황제 숭배사상이 매우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 사데에는 사도요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데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

아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죽은 시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시체가 된 까닭은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2절 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의 행위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온전입니다. 본문2절에 언급되고 있는 '온전한'에 해당되는 헬러어는 <플레로오>로서 여기에서는 수동태 완료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플레로오>라는 단어가 '채우다' 또는 '충만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로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세상의 풍요함으로 충만했을 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풍요함으로 자신의 육신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런 충만함이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히 채운 저들의 육신을 가리켜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세상적

으로는 충만하였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걸어다니는 시체'였던 것입니다.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데교회 성도들에게 "...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절 상)고 경고하셨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람바노>로서 '취하다' 또는 '받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복음의 진리를 받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 드리고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들었다'는 것은 <아쿠오>로서 이는 '듣다', '들어서 깨닫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하나님께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복음을 깨달았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생각하다'는 <므네모뉴오>의 현재 명령형으로 '항상 상태를 뒤돌아 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지키다'는 <테레오>의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서 이미 취하고 깨달았던 복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지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오>로서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번에 확실하게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경고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거나 지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주님의 날이 도적 같이 이를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데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마지막을 마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생명은 없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계 3: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사데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4절 상). '흰 옷'은 천국의 옷을 의미합니다. 오직 천국에 거할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누구든지 흰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4절 중).

주님은 누가 '흰 옷'을 입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4절 하). 오직 합당한 자만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누구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
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주님은 오직 거룩한 신부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흰 드레스를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오직 거룩한 신부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는데 거룩한 신부는 '옳은 행실'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은 '믿음'만으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뒷따라야만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비

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부가 단지 신랑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깨끗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도 육적으로 정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믿음'과 함께 율법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옳은 행실이 있는 성도만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세마포는 '흰 옷'을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직 옳은 행실이 있는 성도만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서 거룩한 신부가 된 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겠

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5절 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 두 가지에 대해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와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없이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착한 행실이나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서는 하늘의 큰 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천국의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매우 강조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증거와는 사뭇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행위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의 말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행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데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은 자"라고 언급하신 것은 저들이 천국에서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문조차 열고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사데교회 성도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강조된 신앙도 잘못된 것이지만 '행위'만 강조된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믿음'과 '행실'이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사데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4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로 이곳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곳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경제적인 부를 누렸지만 지진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 A.D.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아시아가 짓밟힐 때에 유일하게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암미아(Ammia)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A.D. 100-160)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은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행실을 바르게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 22:22]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께서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서면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 3: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8절 상)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을 위해 열어놓은 천국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으면 천국 문은 열린 것이고 주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면 천국 문은 닫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신 것은 저들의 '행위'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8절 하).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
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행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더욱 칭찬하신 것은 저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은 원문에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분이니 사회적인 지위 및 외적 능력이 보통 사람에 비해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최선으

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본문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카이 에테레스>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적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온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을 때에도 가장 최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계 3: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은 철저히 지켜 행하나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죽인 행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수님은 유대인을 가리켜 '사단의 회'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회'는 사탄을 따르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여기고 잘 섬겼으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사단의 회'로 인한 공격으로부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러한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인내함으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가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은 사탄의 조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에 의해 조정받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우리들 마음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예수'를 지워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앞잡이 유대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유대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케 하거나 예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자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시험의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모두 시험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공격하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도 시험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 3: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상급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전의 기둥만큼은 잘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며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왕상 7:21]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브루기아 가루'라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하였으며(골4:12,13)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멘'이시다는 말은 '진실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할 때는 '동의하다'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표현될 때는 이처럼 '진실한'이라는 형용사로 인격이나 성품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임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고 주님은 세상의 근원이 되십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 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가리켜 '차지도 않고 더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보다 확실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와 에베소로부터 물을 끌어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히에라볼리로부터는 온천수가 공급되었고 에베소에는 냉수가 공급되었습니다. 두 곳의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올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식수로 사용하기엔 적합치 못하여 마시는 사람마다 그 물을 토해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물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성도들 토해 버리실 것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계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겼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부유했기 때문입니

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상은 그들이 곤고한 자이며 가련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며 눈 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한 자’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정된 삶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곤고한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련한 자’는 가없고 불쌍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가없지도 않았고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저들이 가없고 불쌍한 자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금융업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저들은 풍요로웠지만 주님의 눈에는 거지였던 것입니다.

‘눈 먼 자’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처절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물이 많아 날마다 쇼핑을 하며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들을 ‘벌거벗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겉모양을 치장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눈

에는 저들이 옷을 안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나 주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자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유하다 자랑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실상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며 가난하여 눈 멀고 벌거벗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우리가 곤고한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럴 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흰 옷’을 살 수 있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살 때에 비로소 그 금으로 ‘흰 옷’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금과

같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옴은 스스로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만
들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옴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
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불’은 ‘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금’이 아닌 모든 것을 태워 버립니
다. 화려한 옷이라 할지라도 불에 태워집니다. 화려한 학력이라도 불에
태워집니다. 풍성한 재물이라도 불에 태워집니다. 강력한 건강이라도
불에 태워집니다. 아름다운 미모라도 불에 태워집니다. 오직 태워지지
않는 것은 ‘금’뿐인데 그렇게 남는 금은 ‘정금’이 되어 주님께 드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련과정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전 3: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고전 3:13] 각각 공력
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
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
니라 [고전 3: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
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전 3: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
은 것 같으리라”

당신은 불에 의해 태워지지 않을 것으로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욕은 모두 불에 의해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도 불에 태워질 것이며 당신의 자녀도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만 불에 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불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때 비로소 "네가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산다는 것은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에 쓰일 약입니다. 이는 마치 육적인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을 때 쓰는 안경처럼 영적인 안경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전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경이 없어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전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소경이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약'입니다.

'안약'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으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화됩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이 전혀 부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완전한 영적 소경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당신에게 부어지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만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영적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19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당신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열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저들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께 심령을 내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을 여는 것입니다. 심령이 열려야 비로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길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에 존재합니다. 단 번에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케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가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열매 맺게 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에 의해 우리의 심령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도무지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러한 먹고 마심은 모두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절)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아 왕과 같이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당신의 영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당신의 심령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보좌에 앉아 왕처럼 열두지파를 통치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열두 지파를 통치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					
교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왜 저들을 책망하셨나?	주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에베소교회 (계 2:1-7)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분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계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버린 것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계 2:8-11)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분	없음	없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시방을 면하게 되리라
버가모교회 (계 2:12-17)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분	사단의 방해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두아디라교회 (계 2:18-29)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분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재녀를 죽이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권세를 주리라

사데교회 (계 31-6)	일곱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분	저들 중 몇 명은 흰 옷을 입 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	저들의 행위가 온 전하지 못하여 살 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복음을 받아드렸 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 적같이 이르리라	흰 옷을 입고 그 이 름이 생명책에 기록 되며 하나님 아버지 와 천사 앞에 시인 하리라
빌라델비아교회 (계 37-13)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 을 배반치 아니한 것	없음	끝까지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 켜 면류관을 빼앗 지 못하게 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교회 (계 314-22)	아멘이시요 충 성되고 참된 증 인이시요 하나 님의 창조주의 근 본이신분	없음	저들의 행위가 더 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것	열심으로 회개하 여 불로 연단한 금 으로 흰 옷을 사입 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으로 통치하리라



13 장

/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계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요한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 이리로 올라오라”(1절 중)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도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1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요한에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진행과정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말을 맞을 것인지 알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천국에 거하며 주님과 영원히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

됩니다. 오히려 천국을 알려 주십니다. 만일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며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믿음과 계명을 잘 지켜 살아가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계 4:2]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 4: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을 때 환상이 열려 주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는 말은 원문으로 <유데오스 에게노멘 엔 퓨뉴마티>인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의 뜻입니다. 이는 완전히 성령 안에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요한의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감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사도요한은 우

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욱 깊이있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요한처럼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눈이 밝아져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 그 보좌 우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2절 하). 자세히 보았더니 주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같고 '남보석'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들 보석이 어떠한 보석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알리려는 사도요한의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증표'입니다. 사도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임을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옆에는 여러 보좌들이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생각은 구약의 12 족장과 신약의 12 제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4장로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

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 보십시오. 저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입니다. '흰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입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면류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 2: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흰 옷을 입으며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왕같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24장로는 이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계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사도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개'나 '음성'이나 '뇌성'은 모두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사도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성전 안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도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 4: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사도요한이 주님의 보좌를 보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6절 상).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은 거룩한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수정과 같고 유리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에 대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계 21: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 21: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 21:20] 다섯째

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
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계 21:21] 그 열두 문
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의 길이 유리같이 맑은 것은 거룩한 성곽과 성 내부가 모두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거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거룩한 성 안에 있으며 주님의 보좌로부
터 생명수 강의 흐르고 있음을 사도요한은 보았습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
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 곳이었는지 그
곳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성전이 있지만 거룩한 성에는 성전
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
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 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의 보좌에는 생물이 함께 하였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의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 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사도요한처럼 스랍을 보았는데 스랍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위군사'와 같은 천사라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가대원'과 같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랍'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라프>인데 이는 '불뱀'(fiery serpent)과 '스랍'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치 않는 천사는 언제든지 '불뱀'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를 통해 '스랍'이 어떻게 '마귀'로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벽별'이라 불리울만큼 매우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보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스랍'의 존재였습니다.

“[사 14:11]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 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령이가 너를 덮었

도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
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
는고”

이사야는 마귀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으로 불리웠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
물 중 매우 뛰어난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견주려 했던 교만으로 인해 하
나님을 대적하다 패배함으로 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
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
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치 않으면
우리 역시 마귀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경배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과 싸
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거할 곳을 얻지 못한채
이 땅에 떨어졌듯이 마귀와 같은 자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계 4:11] 우리 주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요한은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아름다운 모습은 24 장로들이 모두 자신의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며 “...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24 장로들은 주님을 가리켜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만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면류관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애써 취한 면류관을 스스로 벗어 버리고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공로나 업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도 주님과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24 장로들의 모습은 진정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천사, 그룹, 스랍의 차이

1. 천사들(angels)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도와 천국의 것을 이 땅에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약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천사는 본질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헬라어 <앙겔로스>로 남성명사로 쓰여진 것과 같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주로 남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 18: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창 18: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성경에서는 천사의 수가 무수히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룹이나 스랍과 같은 천사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 그룹(cherub, 체루빔-cherubim)

그룹에 대한 첫번째 언급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므로 인해 더 이상 에덴동산에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화염검과 그룹을 두셨습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루브>인데 이곳에 남성 복수형 어머인 <암>이 붙어 <케루밤>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케루밤>이라고 하면 '그룹들'이란 복수형태가 됩니다. 그룹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은 지성소의 그룹들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Ark of Covenant)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 좌(mercy seat) 혹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속죄소와 함께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였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호위군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삼상 4:4)" 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삼하 6:2),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왕하 19:15),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사 37:16)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룹을 타고 날으시며"(삼하 22:11),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시 18:11)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확연하게 운행하는 그룹들을 보았는데 그룹들은 모두 네 날개와 네 얼굴을 지닌 생물(living creatures)이었습니다.

"[겔 1: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겔 1:6]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겔 1:7]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이 빛나며 [겔 1:8]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겔 1:9]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이 본 그룹은 에스겔 10장에서도 다시한번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네 생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각 생물에 네 개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도요한이 바라본 네 생물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바라본 네 생물 역시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모양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생물마다 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그룹은 네 개의 날개가 있는 반면에 사도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스랍(Seraphs)

스랍(Seraphs)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라프>로서 '불뱀(fierly serpent)' 또는 '스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로서 언제나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합니다. 만일 스랍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뱀'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벽별'이라 불리울 정도로 천사들 중에 매우 뛰어난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그는 '불뱀'이 된 것입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처럼 스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스랍은 '불뱀'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불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몰어 죽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랍은 그룹과 상당히 비슷한 천사계급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룹이 하나님의 호위 군사라고 한다면 스랍은 성가대원과 같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지만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그룹'의 임무와 '스랍'의 임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언급되고 있는 스랍은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였습니다.

"[사 6: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사 6:3] 서로 창회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요한은 열린 하늘 문으로 이끌리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며 보좌에 함께 하고 있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을 보았다고 해서 그 네 생물이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과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그룹이었지만 사도요한이 본 네 생물은 스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요한이 본 네 생물이 그룹이 아닌 스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사도요한이 바라 본 네 생물은 이사가 바라 본 스랍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스랍은 그룹과 달리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공중에 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발을 가린 것은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랍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존경심과 두려움과 함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14 장

/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계 5: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 5: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계 5: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헬라어 원문으로 <에피 텐 더시안>으로 씌어졌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번역할 때 ‘오른손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책’은 헬라어 <비블리온>은 고대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두루마리’(scroll)를 의미합니다. 두루마리가 인으로 인봉되었던 것입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헬라어 원문은 <게그람메논 에소덴 카이 오피스덴>인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안쪽과 뒷면에 썼다’입니다. 이는 한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한번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루마리에 적혀진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절대로 변경되지 못하도록 내면과 바깥면에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의 ‘봉하였더라’는 헬라어 <카테스프라기스 메논>으로 쓰여졌는데 이는 ‘위 아래로 봉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책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합된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하늘의 비밀과 이 세상의 종말과 인간의 구원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봉인된 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일곱인으로 봉합된 책의 내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한 권씩 펼쳐질 때마다 하늘의 비밀과 이 세상의 종말과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 5: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계 5: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 5:7]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사도요한은 인봉된 책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찌나 그가 책을 보고 싶었던지 아무도 그 책을 펼 자가 없어 슬피 울었습니다. 장로 중의 하나가 사도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세리라..."(5절)고 위로하였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 '사자 새끼'라고 하였습니다.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앞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이 예언은 마귀를 상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신 왕'이시기도 하지만 '이기는 자'이시며 '메시야'이십니다. '이기었다'는 말은 헬라어 <이두에니케센>으로 '보라'라는 감탄사와 <이두>와 '이기었다'의 부정 과거 시제인 <에니케센>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주님께서 '단번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도요한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바로 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일곱 뿔은 부활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이며 '빨'은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곱 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계 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께서 인봉된 책을 취할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경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들이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은 주님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거문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거문고는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 저들이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렸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아버지와 우리와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중보역할

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보다 신속하게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딤펴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기도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집어 넣는 것은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 확실한 효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다 확실한 효력을 갖게 되며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은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헛된 기도 방법입니다.

”[계 5: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 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거문고를 가지고서 '새 노래'로 노래하였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영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새 노래'라는 말 가운데 '새(new)'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네오스>란 단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만 <카이노스>는 이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를 잘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
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
라 하시니라”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
기서 ‘새 포도주’의 ‘새(new)’는 <네오스>로 쓰여졌지만 ‘새 부대’의 ‘새
(new)’는 <카이노스>로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새로운 것이 귀
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새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것이 아
무런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세
상의 새로운 것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께 불러 드렸던 ‘새 노래’는 세상적인 노
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였습니다. 세상적인 정욕이 담겨져 있는 노래
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난 자가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노래가 ‘새 노래’
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 노래’를 주님께
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

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9절 하). 이곳에 언급된 네 가지 표현법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족속’은 혈육을 통해 맺어진 ‘씨족’이나 ‘가족’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백성’은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공동체로 어울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네 가지 구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얻게 된 ‘원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 자들로 정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주님의 은혜로 인해 택함을 받고서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러진 자들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 5: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
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
이요 천천이라 [계 5: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
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 5: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도요한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먼저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
습을 보았으며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
았습니다.

이렇듯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21
장~22장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인봉된 일곱 인이 순서대로 떼어지면서 세상의 종말이
어찌 될 것인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인이 모두 떼어지

고 나면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15 장

/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계 6: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드디어 주님께서 봉인된 책의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인된 책의 내용은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며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언제 천국이 세워질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주님의 보좌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스랍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든 천사들 중에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1절 하).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한 것은 말 탄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네 말 탄 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 말 탄 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말을 탄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인을 떼셨을 때 각각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증거되는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셨지만 그 일어나는 상황을 네 생물들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 6: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을 때 나타난 것은 '흰 말'이었습니다. '흰 말'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며 다소 평온하고 평범한 날들이 진행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매우 깨끗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시한번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거한 마귀로 인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럽혀진 것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사냥을 위한 활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였거나 일에 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의 삶을 의미합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흰 말'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지극히 일반적인 세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마귀의 공격을 가장 적게 받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죄를 짓고 더럽혀진 자들은 정직하고 질서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점차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
니라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
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째 인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첫째 인의 모습을 지나 둘째 인이나 셋째
인, 혹은 넷째 인이나 다섯째 인의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
다. 점점 마귀의 공격은 거세지고 있어서 그만큼 세상은 더럽혀지고 있
는 것입니다.

”[계 6: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계 6: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
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습니다. '붉은 말
탄 자' 역시 상징입니다. 실제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온 것이 아니며 붉

은 탄 자의 영향에 의해 이 땅에 화평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 '붉은 말'로 그 상징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화평'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만큼 축복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눅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지만 마귀는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제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우리에게서 화평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화평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빼앗겨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화평'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도 '화평'을 빼앗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도 '화평'을 빼앗긴 자이며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땅이었지만 마귀로 인해 그 땅에 '화평'이 없어지면서 세상이 미움과 싸움과 전쟁으로 물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둘째 인은 바로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둘째 인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셋째 인이나 넷째 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 6: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계 6: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말'은 셋째 인에 해당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저울은 밀을 재고 보리를 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재니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가 되고 보리가 석되었습니다. 이는 보통 때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12배에서 16배나 높은 액수였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셋째 인에 해당되는 세상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물가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받는 임금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란 말은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치말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디케오>인데 이는 '손상시키지 말라', '잘못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것만큼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어짐으로써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이 없다면 물가도 자연히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이 끊이지 않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드신 평화로운 세상을 가만히 놔둘 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싸움과 죽임과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돌이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남에 대한 미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화평'이 임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 평화하라”

“[계 6: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

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계 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또한 상징인데요 세상의 모습이 청황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황색’이라는 단어는 <클로로스>인데 이는 ‘누른빛의 푸른색’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병든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의 모습이 마치 누른 빛의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황색 말’은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가득차 있음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도 영원할 땅이었으며 인간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듦으로 인해 인간은 점차적으로 병들과 죽게 되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뒤에 ‘음부’가 따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8절 중).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롬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8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붙잡히는 자는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사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입니다.

“[계 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 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계 6: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극심화 될수록 순교자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편

에 선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믿음을 배반치 않는 자들입니다. 짐승은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도요한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저들은 '저희의 가진 증거'를 굳게 지킨 자들입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는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갚아 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 61: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은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모든 순교자의 피를 갚아 주실 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짐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며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흰 두루마기'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의미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스톨레 류케>로 <스톨레>라는 단어는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저들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악으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넷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다섯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악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을 구세주로 삼는 스스로의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임이 저들의 생을 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저들처럼 우리들도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할 목숨이니 저들처럼 순교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잠시 쉬을 가질 것입니다.

”[계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계 6: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계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계 6: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12-14절). 이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을 2:31]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증거를 주실 때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예언하셨습니다.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도요한이 바라 본 여섯째 인의 징조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욘 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고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에 살아남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16 장

/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구분	해당 장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 분해
일곱 인	6장	일곱 인에 대한 설명(1)
	7장 1-3절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1)
	7장 4-17절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1)
일곱 나팔	8-11장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2)
	12-13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2)
	14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2)
일곱 대접	15-16장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3)
	17-18장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사탄에 대한 설명(3)
	19장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과 천국의 모습(3)
세상 끝	20장	주님의 재림 때 사탄의 붙잡힘 / 복천년 / 심판에 대한 설명
	21-22장	천국의 삶에 대한 설명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사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모든 재앙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장과 같은 내용이 세차례 나옵니다. 7장에서 한번 나오고 14장과 19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똑 같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보다는 14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14장보다는 19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똑 같은 세상에 임할 크고 두려운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일곱 인’보다는 ‘일곱 나팔’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곱 나팔’을 읽을 때 ‘일곱 인’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일곱 대접’을 읽을 때 ‘일곱 나팔’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서야 비로소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복천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복천년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어지게 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땅이 펼쳐지고 그 위에 거룩한성이 놓여지게 됩니다. 천국에 거하는 의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을 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취하고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복된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는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 차례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이해를 해야만이 보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네 천사'는 '일곱째 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전체 내용은 '일곱째 인' 곧, '일곱 나팔'이 진행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크고 두려운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포함하는 것이고 '천국에 거할 의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지구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오리라 여겼던 '크고 두려운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곳 7장에서 언급된 '네 천사'는 '크고 두려운 날'을 인도하는 천사들입니다. 물론 7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약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7장의 약간 언급된 내용은 '크고 두려운 날'의 시

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3-1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다시한번 그 내용은 17-18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똑 같은 내용이 세차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반복될수록 더욱 그 내용이 복잡하고 강하여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잡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종결됩니다.

네 천사에 의해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 네 천사를 제지시킵니다.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2절 상). 다른 천사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3절)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 임할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맞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일찌기 아벨을 죽이고 세상의 첫번째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계 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 7:5]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계

7:8]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었습니다. 인 맞은 자의 수는 모두 144,000입니다. 사도요한이 들은 인 맞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는 3과 4를 더한 수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3과 4를 더해 만들어진 7의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는 '천국'을 가리키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게 될 때 144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12 \times 12 = 144$). 여기에다가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따라

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곳 7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지파 대신에 '요셉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지파가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으나 '단'과 '에브라임'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단지파'와 '에브라임지파'는 가장 우상숭배를 행한 지파였기 때문에 천국의 12지파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계 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 7: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일 후에’ 사도요한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크고 두

려운 날'이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재앙을 내리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네 천사가 재앙을 퍼붓기 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잠시 저들이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다른 천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처음에 언급된 인 맞은 자의 수는 144,000명이었지만 본문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별도로 추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의 수가 144,000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4,000명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요한은 9절에서 다시한번 144,000명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44,000명의 수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의 수가 한정된 수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그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왔음을 밝혔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족속'은 혈육을 통해 맺어진 '씨족'이나 '가족'을 의미합니다. '백성'은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공동체로 어울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흰 옷 입은 자들이 전 세계 모든 인류로부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10절)고 경배하였습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의 경배와 함께 모든 천사들이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12절)고 소리높여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주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기는 자'의 개념을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갈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귀를 따를지 주님을 따를

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변명의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서 원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계 7: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24장로들 중 한 장로가 사도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요한계시록 2-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주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을 지켜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 입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전해 주었던 방법은 주님께서 일곱교회에 보내셨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가 말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곱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의 보혈로 너희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장로 중 하나는 이러한 방법을 사도 요한에게 말하였을까요?

보혈은 주님께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 보혈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보혈은 승리입니다. 그 보혈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혈로 인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주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보혈 때문에 마귀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보혈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혈 한 방울로 우리를 구원케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충성하길 원하셨습니다. 강제로 충성케 하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 죄에 대해 처절한 아픔을 느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더라도 주님의 보혈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곱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혈'에 대한 내용을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보혈이 정답이지만 애써 정답을 감추셨던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정답을 찾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일곱교회에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	
교회	주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나?
에베소교회 (계 2:1-7)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서머나교회 (계 2:8-11)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교회 (계 2:12-17)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교회 (계 2:18-29)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리라
사데교회 (계 3:1-6)	복음을 받아드렸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빌라델비아교회 (계 3:7-13)	끝까지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오디게아교회 (계 3:14-22)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입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 7:16]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계 7: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사도요한은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또한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은 죄를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있

어서 무한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고역스러운 일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끌려다니듯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직장도 다니고 사업처도 운영하지만 천국에서는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만 섬기는데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에 맞는 사람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옥에 맞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장막'을 쳐 주십니다. '장막'의 헬라어는 <스케네>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성막'을 가리켜 구약시대의 유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옛 시대의 유물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미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성막'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잘 알아야 천국에서의 성막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 천국에서 성막의 은혜를 잘 누리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막에 대해 잘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성

막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사도요한은 주님께서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장막을 쳐 주실 때에 흰 옷 입은 자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저들을 상하게 하지도 아니함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대로 이러한 일은 실제로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똑 같은 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도 없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고 병들어 고통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흰 옷 입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

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곧이 '거룩한 성'과 '천국'을 구분하는 이유는 거룩한 성 안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 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이라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천국에는 '성전'이 존재합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존재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과 천국은 구분되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천국 안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에 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 21: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 오겠고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한 내용 뿐입니다. 특별히 천국 중에서도 거룩한 성에 대한 내용이 가득차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우리는 천국과 거룩한 성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천국 위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성경은 이 성의 크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우리는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적은 부분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거룩한 성은 다른 장소이며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만 생명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
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요한은 이러한 거룩한 성에 대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는 사도요한의 기록을 통해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한 내용을 어렵사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에 가서 알게 될 내용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분량일 것입니다.



17 장

/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계 8: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계 8: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
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일곱 나팔이 준비되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해 예비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일곱 천사'라고 언급된 말의 헬라어는 <투스 허타 앙겔루스>인데 이곳에 정관사 <투스>가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해 예비된 특정한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곱천사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예비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행하기 위해 공손히 서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시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헤스테카신>인데 이 단어는 '서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스테미>의 완료 능동태로서 '서있는'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불어지는 때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였습니다. 이는 일곱째 인이 곧 일곱 나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곱 나팔에 나타난 재앙은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의 세상 징조와 더불어 열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인이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해 펼쳐지는 그

림이었다면 일곱 나팔은 크고 두려운 날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어질 때 이 세상에 닥치는 재앙이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이보다 일곱 대접에서의 재앙은 훨씬 크고 강한 것이며 세상의 종말을 향해 치닫는 것입니다. 결국 일곱 대접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끝이 나게 됩니다.

“[계 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하고자 함이라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 8: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세상에 임하는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하여 하늘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 맞은 자라 할지라도 크고 두려운 날에 저들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임하는 크고 두려운 날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해

서 한 방울의 비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산을 쓸지라도 비가 오면 어느 정도의 비는 맞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난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산 없이 비를 맞는 사람보다는 훨씬 비를 덜 맞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가벼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천사'는 '주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향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곧 인 맞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인 맞은 자들의 명단을 하나님께 보고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 맞은 자들을 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 맞은 자들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주님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이는 나팔을 불도록 일곱 천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은 잠시 나팔을 부는 것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 맞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곱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때 신호가 되었던 증상들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었습니다. "...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5절 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의 성전에서 이러한 증상을 보았습니다.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주님께서 나팔을 불 일곱 천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이 세상의 재앙을 내려도 좋다는 허락의 표징인 것입니다.

“[계 8: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계 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계 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계 8: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계 8: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계 8:11]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 8: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드디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비하더라'는 말은 <हे토이마조>의 부정과거 능동태로서 천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팔은 순차적으로 불어졌습니다. 각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처음 네개의 나팔은 자연계를 향해 재앙이 임하였지만 나머지 세개의 나팔은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처음 네개의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도록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땅에 그러한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녕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땅의 1/3 이 타버리고 수목의 1/3 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나팔이 불 때에 바다의 1/3 이 피가 되

어 바다 생명체의 1/3 이 죽고 선박의 1/3 이 깨어졌습니다. 셋째 나팔이 불 때에 강들과 샘물의 1/3 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 나팔이 불 때에 해와 달의 1/3 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한결같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은 모두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파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재앙 또한 우상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나팔 때 임하는 재앙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재앙입니다. 마귀의 본거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땅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근거지가 되는 땅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때 임하는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다는 악한 세력이 득실거리는 곳이며 사람들은 바다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 우상들에 대한 재앙인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물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벌하시기 위해 물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빛에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벌하시고자 빛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재앙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의 조짐은 이미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1/3 이나 되는 광범위한 재앙

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 맞은 자들을 다 모을 때까지는 잠시 기간이 남아 있겠으나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	재앙이 임했던 이집트의 신들	관련성구
1	물이 피로 변함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Khnum) 하피(Hapi)	출 7:14-25
2	개구리	부활과 다산(多産)신 헤크트(Heqt, 크눔의 부인)	출 8:1-15
3	이	흙의 신 셉(Seb), 곤충의 신 케퍼(Kheper)	출 8:1-15
4	파리	파리의 신 바알세불(Beelzebub, 에그론 도시도 이신을 섬겼다)	출 8:20-32(마 12:24)
5	가축의 악질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Apis, 내세를 약속했다)와 므네비스(Mnevis),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Hathor)	출 9:1-7
6	독종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Thoth)	출 9:8-12
7	우박	창공의 여신 누트(Nut), 대기(太氣)의 신 수(Shu)	출 9:13-35
8	메뚜기	곡물의 신 셋(Seth)	출 10:1-20
9	암흑	태양의 신 라(Ra), 태양의 여신 세케트(Sekhet)	출 10:21-29
10	초태생의 죽음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Isis), 지상의 태양신 바로(Pharaoh)	출 11:4-12:30

“[계 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도 하더라”

넷째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다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사도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다..."라고 말하면서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도..."(13절)라고 외쳤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난 것은 이전의 네가지 재앙에 비해 앞으로 있게 될 세가지 재앙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화, 화, 화"라고 강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세가지 재앙은 모두 인 맞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인 맞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 가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8 장

/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 9: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계 9: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 내용이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네 가지 재앙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가지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기간은 저들이 충분히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치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마음껏 이 세상에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곳으로부터 황충이 땅 위에 나올 것입니다. 황충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3절 하).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수풀과 수목을 송두리채 먹어 치우는 무서운 곤충입니다. 이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저들을 통해 수많은 인간이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9: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9:5] 그러나 그들

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계 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황충에게 이르시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4절)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줄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땅도 고통을 당해야 하고 저들 스스로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 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이십니다. 인 맞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 풀과 수목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충이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당하는 고통이 어찌나 큰지 저들 스스로 죽고자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되 죽음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 맞지 않는 자들의 당하는 기간을 ‘다섯 달 동안’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는 문자 그대로 다섯 달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은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황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계 9: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계 9: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계 9: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계 9: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황충의 모습은 마치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마치 면류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러한 황충의 모습은 실제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매우 지혜롭고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이 씌어졌다는 것도 저들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할 때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요한은 황충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 털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긴 머리털은 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손의 힘이 긴 머리칼에서 비롯된 것처럼 저들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을 마음껏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계속해서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사자의 이처럼 생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저들의 날개소리는 거대한 말들의 말굽소리처럼 들렸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황충에게 부여된 권세가 지극히 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황충이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 9: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사도요한은 황충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사자'요 그의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블루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라는 말은 그가 사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블루온>인데 모두 '파괴자'를 뜻하고 있어서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 9: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다섯째 나팔이 불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두 개의 화가 남아 있는데 각각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나팔은 다섯째 나팔보다 더욱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일곱째 나팔은 여섯째 나팔보다 더욱 강도가 세지며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 다 주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분리해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곱번째 나팔’은 곧 ‘일곱개의 대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 9: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계 9: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계 9:17] 이 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향빛 홍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

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계 9: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계 9: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하고 있었던 네 천사가 놓임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한님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13-14절).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결코 여섯째 나팔은 불어질 수 없습니다.

이 네 천사는 이 땅의 사람 중 1/3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15절).

성경은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수가 “이만 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억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라기 보다는 그 수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네 천사의 군대가 이 땅의 사람 중 1/3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마병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17절).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모습이 자주빛과 유황빛을 띄면서 그 홍갑에서 불빛이 나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 모습인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병대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진 불과 유황을 연상케 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1/3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18절).

사도요한은 마병대의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19절). 이러한 모습은 언뜻 전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저들의 꼬리가 '뱀같다'는 것은 저들이 사탄의 일을 행하는 무리들임을 알게 해 줍니다.

"[계 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 9: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병대의 공격에 의해 이 땅의 사람 1/3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왜 저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충분히 저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재앙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최악된 행위에 대해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으며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걱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울테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며 큰 복입니다.



19 장

/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계 10: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 10:2]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 10:3]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지나간 후에 사도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언뜻 보면 마치 힘센 천사는 주님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에서 그 힘센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천사는 주님이 아닌 다른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계 10:5-6)

힘센 천사의 외치는 소리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았고 일곱 우뢰 소리와 같았습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3절). ‘일곱 우뢰’의 소리가 발했다는 말은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거부할 수 없을만큼 권세가 큰 소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우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뢰 소리가 ‘일곱’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 10:4] 일곱 우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요한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말들을 기록하려고 하였으니 힘센 천사는 기록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일곱 천사가 사도요한으로 하여금 그 말들을 기록하지 말라 명한 것은 하늘의 비밀은 함부로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요한이 힘센 천사가 들려 준 말을 기록하였더라면 아마 그는 그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해준 말에 은혜를

받았겠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들었지만 그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그 내용을 받아 드리기에는 너무나 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더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보고 들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후 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후 12: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후 12: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골 2: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

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욘 2: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함부로 보고 들은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지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요한과 사도바울이 자신들의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사도요한과 사도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며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신의 보고 들은 내용을 발설하거나 글을 쓸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계 10: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계 10: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힘센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섰습니다. 그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하였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6절). 이는 그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천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말하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된다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7절). 그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 10: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계 10: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

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계 10: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 10: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작은 책을 건네 주었습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그 책을 먹으라고 말하였습니다. “... 갈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네 배에는 스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9절)고 말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그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한의 배에는 쓰게 되었으나 그 입에서는 꿀 같이 단 맛이 났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11절)고 명령하였습니다. 천사가 건네 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경’입니다. 사도요한은 성경을 먹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먹었던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 당신이 성경을 먹는다면 사도요한이 느꼈던 똑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먹을 때 그것이 당신의 배를 쓰리게 할 것이며 당신의 입에서는 단 맛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의 배를 쓰게 하는 것은 당신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정욕이 제거될 때 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은 참으로 아까운 것입니다. 참으로 아까운 것이 제거되니 왜 아니 쓴 맛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전혀 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성경을 먹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자극시키거나 머리 속에 박히는 지식적인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욕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리 저리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태움을 통해 세상의 정욕이 재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 배에 쓴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전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입 안에서 씹어질 때에는 전혀 단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단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의 입에 단 맛을 느꼈던 것입니다.



20 장

/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힘센 사자는 사도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갈대’는 치수를 재는 길고 곧은 장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같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치수를 재는 잣대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은 헬라어 <나오스>인데 이는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제단’은 성소 앞에 위치한 ‘번제단’이나 ‘분향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성전을 통해 밀과 가라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전에는 오직 ‘이기는 자’만이 거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척량했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에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거하시며 성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며 사도요한의 갈대는 이러한 자를 척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갈대로 척량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들은 '가라지'로 척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로 구분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 밖 마당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헌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

님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은 천국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천국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은 성도인 우리들 자신이며 성도가 함께 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계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굽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계 11: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 11: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 11: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

“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힘센 천사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3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증인’은 곧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경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 증인은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경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성경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마흔두 달을 의미하며 이는 곧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며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3년 6개월 동안 전파되는 것처럼 사탄의 재앙 또한 3년 6개월 동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탄의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전이시켜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굽은 벼오'를 입은 것입니다.

힘센 사자는 두 증인을 가리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4절). 두 증인을 가리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곧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는 떨어야 떨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촛대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촛대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촛대라 빛을 낸다는 것은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작업입니다. 두 증인의 삶은 빛되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가리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탄입니다. 성령의 불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뜻에 따라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사탄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와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계 11: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계 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계 11: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계 11: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7절 상)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을 구분하시기 위해 사탄을 통해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재앙이 임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는 성도들에게도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난’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는 사탄의 재앙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모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무저갱

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7절). 성도들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성도의 시체가 온 세상에 널려질 것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8절 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성도들 또한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성도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를 보면서 즐거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서로 예물을 주고 받을 정도로 기뻐했겠습니까? “...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10절 하). 우리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고난이 될 것이며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대환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 11: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 11: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 11: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

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 11: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삼 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 속에 들어갑니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11절). 이는 마치 하나님의 ‘생기’가 흠으로 빛은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아담이 ‘생령’(Living Being)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핍박으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12절 상). 두 증인이 죽음에서 살아나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리어 올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 올림을 받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림을 받는 것은 천국에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 곧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의 1/10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철천이라..."(13절 상). 이러한 모습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 거하는 자들은 천국에 거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극심한 부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리워 올려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13절 하).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고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가 바로 여섯째 나팔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둘째 화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나팔의 징조는 곧 둘째 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 11: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계 11: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 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그 동안 여섯 나팔이 불어질 때
에 이 땅은 수많은 재앙들로 황폐해지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그
재앙들이 모두 끝이 나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을 통
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왕
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15절 하).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
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16절). 이러한 이십사
장로들의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계 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
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하나
님께 붙잡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온
백성과 천사와 이십사 장로들이 주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
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사망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 부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 11: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모든 재앙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이 땅에 재앙을 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

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은 <나오스>로서 일반적인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뜻합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을 본 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과 같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 그곳이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에서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이 함께 했습니다. "...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19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번개나 큰 음성이나 뇌성, 지진, 우박 같은 것이 함께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징과 함께 친히 임하셨습니다.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뽐뽐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출 19:18]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1 장

/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계 12: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계 12: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계 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 12: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 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 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어짐과 동시에 일곱째 나팔이 일곱대접으로 확대되어 구체적으로 재앙이 설명되듯이 사탄의 정체 또한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처음 천국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계 3-4장) 또 다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계 20-22장). 처음에 언급되었던 천국의 내용이 다시금 반복 될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반복구조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사탄의 정체와 하늘전쟁은 시대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탄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12장에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반복성을 무시한채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 12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때 비로소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직후에 이미 이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여자', '아이', 그리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자를 핍박하며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마귀는 '큰 붉은 용'이라고 불리웁니다. 그에게 머리가 일곱이 있는데 일곱 머리마다 면류관이 씌어졌습니다. 또한 그에게 열 개의 뿔이 있습니다. "...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3절). 마귀의 일곱 머리에 면류관이 씌어진 것은 이 세상의 왕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열 개의 뿔이 있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이러한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능과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얻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하여금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마음껏 이 세상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계명지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수를 말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천국의 천사 중 1/3에 해당되는 수였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4절 상).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였는데 성경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4절 하).

이 ‘아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성도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여자’를 이 땅의 ‘교회’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로 마귀를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가지신 철장 권세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곧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 그 이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5절 하).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스테반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행 7:55]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승천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믿는 자들도 부활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올려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의 육과 혼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결코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요한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6절)고 기록하였습니다. '일천이백육십 일'은 3년 6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년 6개월'이란 기간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이며 이는 곧 마귀의 핍박이 함께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인간을 핍박하는 일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단 하루도 쉬 적이 없으신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3년 6개월 동안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어도 됩니다.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는 성도와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도요한은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마귀가 그의 추종자들과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였고 어떻게 이 땅에 떨어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은 마귀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천사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장 미가엘의 주관하에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7절)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너무나 높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자고해져서 자신을 하나님과 견줄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결국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으나 교만한 자는 승패의 당연한 결과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주는 증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문둥병자처럼 자신의 썩어들어가는 살점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마귀는 하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하늘에 거할 곳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거할 곳은 이 땅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사의 직분에서 박탈을 당하고 이 땅에 떨어졌으며 평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와도 같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을 원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 취급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문제로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으며 자신의 자식 문제로 하나님을 원수로 여깁

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 취급을 하고 재정 문제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 삼는 사람은 마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불과 유황불에 쳐 넣으실 텐데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은 마귀가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것을 친히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이미 하늘전쟁을 친히 참관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하늘에서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것을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 언급된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천사들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서 이 땅으로 쫓김을 받은 후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10절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소자’는 <카테고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고소자’ 또는 ‘비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 번역으로는 ‘참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 증거했듯이 사탄은 ‘참소자’였습니다. 그가 ‘참소자’로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 큰 음성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형제인 천사들을 고소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매우 가까운 곳에 거하는 천사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뛰어난 천사였던 것입니다.

“[요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다른 천사들에 비해 사탄은 다른 형제 천사들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뛰어난 천사였지만 그는 의인들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욥과 같은 의인을 비난하고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욥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믿음을 비난하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욥 1:8]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 1:9]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 1:10]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욥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사탄은 천국에서도 형제 천사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쉬없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 천사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하나님께 고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처럼 형제를 비난하고 고소하는 참소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소자들은 모두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참소는 사탄의 참소와 똑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

제를 비난하거나 고소하는 자는 모두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사탄과 똑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 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의 큰 음성은 어떻게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패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함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천사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미 저 천국에서 예견된 것이었으며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세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천사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끔찍히 섬겼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11절 하).

천국에서도 주님의 보혈과 믿음의 증거가 승리의 이유가 되었던 이 땅에서도 당연히 주님의 보혈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승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는 주님의 보혈이 있고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을 믿음으로 뿌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계 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
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
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 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
는지라”

하늘의 큰 음성은 "...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
서 "...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
희에게 내려갔음이라..."(12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으로 쫓김을 받은 사탄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자신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분노
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때가 얼마 못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데 이는 이 세상의 때가 그렇게 짧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 세상이 창
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

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긴 세월같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짧은 기간인 셈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처럼 짧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쫓김을 당하고 자신들의 결국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과 함께 한 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 사탄 역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사탄이 주는 복은 너무나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복이지만 사탄의 복은 저주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계 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계 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계 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여자’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했던 부분이 재차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큰 독수

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14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을 뜻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양육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귀의 핍박이 있는 기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성경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15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한 것은 ‘홍수’와 같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인간을 죽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홍수를 사용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홍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16절)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거세고 핍박이 많을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홍수도 땅이 삼켰듯이 사탄이 사용한 홍수 역시 땅이 삼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홍수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땅에 가뒀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홍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땅에 가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코 물이 사람을 죽이도록 가만히 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창 9:15] 내가 나와 너희와 밋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사탄을 뜻하며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에 분노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자녀들을 도와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한번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죽게 될 운명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이나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기위해 그 사람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갈수록

더욱 우리를 향한 사탄의 핍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분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줍니다.

“...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17절)



22 장

/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도요한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 대해 사도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1절).

짐승의 뿔은 10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면류관이 뿔에 씌어졌다는 점입니다. 사탄에게는 면류관이 머리에 씌어졌습니다. 이는 사탄이 짐승의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뿔에 면류관이 씌어진 것은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7-8장 평행비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p>금</p> <p>은</p> <p>놋</p> <p>철</p> <p>철/진흙</p> <p>돌</p>	<p>바벨론제국 (BC626-539)</p>	 <p>사자 바벨론</p>		
	<p>메대/바사제국 (BC539-331)</p>	 <p>곰 메대-바사</p>	 <p>숫양 메대-바사</p>	
	<p>헬라제국 (BC331-63)</p>	 <p>표범 헬라</p>	 <p>숫염소 헬라</p>	 <p>작은뿔 시리아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상징</p>
	<p>로마제국 (BC63-AD476 서로마) (BC63-AD1453 동로마)</p>	 <p>괴물 로마</p>		
	<p>열국시대 (AD476-세상끝) 적그리스도 출현</p>	 <p>열뿔 열국시대 한뿔 적그리스도</p>		
	<p>하나님나라 (세상끝-영원)</p>	 <p>천국 주님나라</p>	 <p>성전정화 주님의 재림 때에 성전정화 이뤄짐</p>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사탄(용)은 짐승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2절 하). 하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2절 상). 사도요한이 보았던 세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과 같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도요한처럼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

으며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과 사도요한이 바라봤던 짐승들은 모두 '짐승'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짐승은 '사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곰'처럼 그 힘과 능력이 강할 것이며 '표범'처럼 그 무자비함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3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짐승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설명할 때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와 다니엘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짐승들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것이지만 다니엘은 짐승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시대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순서는 가장 먼저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곰'이고 세번째는 '표범'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언급된 짐승은 '철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자'로 표현될만한 나라를 '바벨론제국'이라 말하고 있으며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바사제국'이며 '표범'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헬라제국'이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철과 같은 짐승'은 '로마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영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의 생각처럼 각각의 짐승이 대표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고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짐승들의 활동은 그렇게 대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 퍼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은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의 악이 지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짐승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제국'과 '바사제국',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제국'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언급된 4개의 제국 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동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제국들에서도 짐승의 흔적은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대한 생각을 보다 폭 넓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계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도요한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땅’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상히 여겨’라는 말은 ‘기이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듯이 짐승의 치유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짐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그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굳건하게 일어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도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으며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듯이 끝까지 죽지 않고 견디며 더욱 강인해지는 짐승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더욱 존경하고 신뢰하여 마침내 경배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짐승은 그 전문성을 대를 이어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맑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위대한 왕이 사라지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끈질긴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강하게 살아나는 짐승의 모습은 사람의 밟에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살아나는 잡초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전문성은 시대를 거듭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마치 죽은 것 같았으나 또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계 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

배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사탄에게도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도 경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아버지를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천국을 흉내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흉내를 내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며 결코 짐승은 그것까지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개월은 3년 6개월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짐승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짐승 역시 이 세상이 창조 된 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짐승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휘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휘방하더라"(6절). 짐승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휘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휘방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짐승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를 핍박할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7절).

짐승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저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을 경배할 뿐입니다.

“[계 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 13: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주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만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직 귀 있는 자만이 주님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로 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10절 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들의 핍박한 대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로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탄의 핍박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인 것입니다.

”[계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 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 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

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도요한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양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11절 하). 그의 모양이 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용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사탄과 하나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포함하여 사탄은 바다의 짐승과 더불어 삼위일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사탄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 처음 짐승에게 경배해 하니..."(12절 중). 그는 짐승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13절).

거짓 선지자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데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15절 하).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17절).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리켜 '육백육십육(666)'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짐승

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입니다. "...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17절 하). 또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18절 하).

이곳에 언급된 짐승의 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자면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입니다.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나온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표가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받는 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는 자는 그의 주인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이는 천국의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666'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666'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결코 '666'표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이마에는 '666'표가 찍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자신의 이마에 '666'표가 찍혀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은 그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교회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666'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은 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수는 불완전한 수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

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666'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정금등대의 촛대는 7개입니다. 가운데 촛대는 다른 6개의 촛대에 비해 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촛대가 6개만 있어도 빛을 낼 수 있습니다. 6개의 촛대나 7개의 촛대나 빛을 내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촛대가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촛대가 없으면 불완전한 촛대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빛이 화려하고 밝을지라도 의미없는 빛이며 그 빛은 어둠과 같은 빛입니다. 오직 주님의 빛이 함께 할 때 불완전한 빛은 완전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등대 촛대가 7개인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666'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666'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666'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찍혀지고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23 장

/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금 144,000명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144,000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며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재앙과 함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급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복은 7장에서 언급되었으며 또 다시 14장에서 거듭 반복되다가 마지막으로 19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반복은 이 세상의 재앙이 일곱인에서 일곱나팔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다시 일곱나팔이 일곱대접으로 거듭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이해하고서 요

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보다 쉽게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44,000명은 어떤 특정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숫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4,000명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었으나 이는 실제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는 3과 4를 더한 수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3과 4를 더해 만들어진 7의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는 '천국'을 가리키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게 될 때 144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12 \times 12 = 144$). 여기에다가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오직 144,000명은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그 누구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나를 위해 부르는 찬양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만이 '새 노래'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만이 부를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은 곧 144,000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 같기도 하며 거문고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2절). 이러한 사도요한의 '새 노래'에 대한 표현은 그 노래가 세상적인 노래와는 다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노래소리는 사도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 노래'가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노래 또한 부르지 못합니다. 저들은 영적인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노래 또한 즐길 수 없습니다. 이는 '새 노래'의 특성이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방언'입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방언기도를 통해 영적인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러한 방언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보다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예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방언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고전 14: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기도를 통해 방언찬양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방언찬양이 영으로 찬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찬양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녹음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바울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전혀 바울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단계인 것입니다.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바울은 혼적으로 기도하는 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기도단계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혼적인 찬양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찬양단계가 있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은 혼적인 찬양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육적인 노래 수준보다야 훨씬 뛰어난 단계이겠지만 영적인 찬양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알아야 보다 쉽고 빨리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뛰어난 선생이십니다.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은 144,000명에 해당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4절).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짐승을 경배하는 삶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144,000 명에 해당되는 성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4절 중).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이며 처자식을 버리는 길입니다.

“[눅 18: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 18:30]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144,000명의 성도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

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한님께서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작정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4,000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정된 자들은 오직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5절). 그래서 베드로는 온 성도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계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여러 천사의 음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천사의 음성은 앞으로 있게 될 세상의 일들에 대한 음성입니다. 첫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7절 상).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였습니다. "...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7절 중)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첫번째 천사의 경고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 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곧이어 둘째 천사도 첫번째 천사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하였는데 그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8절 상).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였기 때문입니다(8절 하).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를 뜻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왕성하게 성장하듯 보여질지 모르나 주님의 재림 때에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하거나 사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계 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번째 천사의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9-10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이는 매우 독한 포도주라는 것인데 독한 포도주를 견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견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10절 하).

사탄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들이 숭배하는 사탄과 짐승이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겪는데 어찌 저들이 불과 유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들은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밤낮 쉬를 얻지 못한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

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11절 하).

이렇게 사탄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들 또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지만 성도들은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12절)

"[계 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13절 상)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 중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보여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아버지께 상달되어 저들의 행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

라..."(13절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험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러한 시험과 핍박이 설령 우리의 목숨을 끊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계 14: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도 하니 [계 14: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 14: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계 14: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계 14: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계 14: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일천육백 스다디 온에 퍼졌더라”

이 부분은 대추수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일곱 대접이 펼쳐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세상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천사들의 음성은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시대순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계 14:6-7). 둘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계 14:8). 셋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탄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하였습니다(계 14:9-12). 넷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계 14:13).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계 14:14-20).

이렇듯 모두 다섯 천사에 의해 들려진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간략하게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들로부터 이 세상의 다가올 일들이 먼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음성은 짐승의 표를 받은 마귀의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이는 비록 이 세상이 사탄의 손에 짓밟혀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 주님께서 왕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14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주님께 추수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15절 상). 이처럼 주님께 추수하도록 명령을 내린 천사는 하나님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주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결코 주님보다 더 높은 천사이기 때문에 주님께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밀과 가라지로 구분하시고 먼저 밀과 같은 성도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추수하실 때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다른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천사를 시키시어 저들로 하여금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 이한 낫을 가진 천사들에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추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18절). 그 천사들은 명령대로 이한 낫을 휘둘러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추수하였는데 그들이 포도주 틀에 밟히니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 넓이로 퍼질 정도였습니다.

피가 '일천 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은 대략적으로 길이와 넓이가 320Km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모든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1,600 스타디온 범위 또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땅의 숫자인 4'의 제곱에다가 완전수인 1,000이 곱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가라지에 대한 추수가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추수는 '성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 밖에 거하는 자는 이처럼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이한 낫에 베이고 밟히어 틀에서 피가 흘렀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20절 상). '말굴레'라는 것은 말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 바깥에서 죽임을 당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 넓이로 흘렀고 그 피의 쌓인 높이가 말굴레 높이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흘린 피가 많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언급되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

는 자들을 척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 안에 거하는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계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24 장

/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재앙으로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에 해당되며 '세번째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나열되는데 그것은 일곱 대접 형태로 이 세상에 부어졌습니다.

“[계 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 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

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 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도요한은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2절 상).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계 21: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 21: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 21:20] 다섯째
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
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계 21:21] 그 열두 문
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미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유리바다’에 대한 언급을 하였

습니다. 그 유리바다에 주님의 보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있는 성도들은 모든 짐승의 핏박을 극복하고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뜻은 성령의 불에 의해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서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의 특권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
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의 성전이 열리며 [계 15: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
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
슴에 금띠를 띠고 [계 15: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
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계 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드디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곱 재앙을 받아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천사들이 ‘하늘에 증거 장막
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5절). 사도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
진 일곱 천사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6절)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일곱 천사는 모두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마포는 맑고 빛난 세마포였으며 게다가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계 1: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는 주님의 세마포 형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의 세마포가 주님의 세마포 형상과 비슷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존귀한 천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옆에 있었던 존귀한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7절). 주님 보좌 옆에서 주님을 경호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네 생물이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을 건네주는 모습을 통해 주님 옆에 있는 네 생물들의 지위가 일곱 천사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언급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였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의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계 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
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사도요한처럼 스랍을 보았는데 스랍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
니다. '그룹'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위군사'와 같은 천사라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가대원'과 같은 천사라
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에게 전달 될 때에 하나님
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8절 상).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 일곱 천사에게 전달될 때에 어찌하여 세상에 재
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 성전에 연
기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가득찬 '연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
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찬 내용을 몇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찬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하나
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을 때에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찼습니다.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
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
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곳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 6:1]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6: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사 6: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4]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러한 '연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증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기'를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였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찬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차기 때문입니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헌납하는 낙헌식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의식을 수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감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지경이였습니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또한 에스겔은 환상으로 성전에 가득히 차있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겔 10:4]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나 '연기'가 가득할 때에는 그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8절 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성전에 임하셨기 때

문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마귀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욱더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25 장

/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
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형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재앙이 '대접' 형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재앙이 부여지는 듯한 형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모든 재앙들이 마귀의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에 의해 내려진 일곱가지의 재앙을 살펴 보면 모두다 마귀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 16:2]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
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헌데'는 헬리어 <헬코스>로서 '독종'이나 '악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애굽에 임하였던 여섯번째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대접의 재앙이 '헌데'라는 것은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 16:3]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바다가 피 같이 변하게 되는 재앙은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은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해 하수의 모든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출 7:20-21).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둘째 나팔의 재앙 때에 바다 피조물 가운데 1/3에 임하였던 것에 비해 둘째 대접은 모든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둘째 나팔 때에 임한 1/3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대접의 재앙 역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피 같이 변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순식간에 이뤄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가 긴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일 것이며 주님의 재림에 의해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계 16:4]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계 16: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 16:6]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 16: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애굽의 나일 강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재앙과 같습니다(출 7:17-21). 셋째 대접의 재앙은 셋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셋째 나팔 재앙 때는 1/3의 물이 쓰게 되었을 뿐이지만 셋째 대접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며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려고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 변한 물조차 마시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물을 피로 만드신 까닭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6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귀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을 저들 스스로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갚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듯이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계 16:8]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 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의 재앙은 해가 불로 변하여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넷째 나팔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1/3 잃어버리는 재앙인 반면에 넷째 대접 때는 해가 불로 변하여 사람을 태우는 재앙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팔의 재앙이나 대접의 재앙 모두 마귀의 자녀들

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때의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여서 주로 이 세상의 1/3에 해당되는 부분만 재앙이 임하도록 하였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대접 때의 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나팔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반면에 대접 재앙 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다보니 다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곱 대접 재앙 역시 그 대상은 마귀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계 16:10]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계 16:11]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부여졌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짐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 재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애굽에 내린 아홉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출 10:21-29). 하나님께서 애굽 때에 빛을 없애시고 암흑만 있게 하신 것은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이 빛을 잃어 버리고 암흑으로 덮혀진 이유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재앙으로 쏟아진 암흑의 재앙이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을 정도였습니다. "...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10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11절).

'하나님을 훼방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훼방한다'는 헬라어 단어 <블라스페메오>는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란 뜻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값을 '신성모독'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훼방하다'란 단어는 성령을 훼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진작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미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회개치 않는 까닭은 저들이 지은 '신성모독'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성모독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죽은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해가 갈라진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말을 주장합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으며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질 때 저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다하는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 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계 1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계 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5]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물

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마른 강물 땅을 통과하여 서방의 왕들과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14절 하). 사탄은 이미 자신의 멸망할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든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에서 '유브라데 강'이 등장하듯이 여섯째 나팔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다만 여섯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이 세상 사람 1/3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질 때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계 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계 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미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의 집요한 성격은 그가 '사탄'임을 증명해 줍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
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
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날에도 집요한 성격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
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가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
유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아갑
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
적자인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
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통해 귀신의 영이 나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케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의 영은 사탄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
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
니”(13절). 귀신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세상의 임금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14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아마
것돈’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것돈 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

을 모으더라”(16절). ‘아마겔돈’의 원래 히브리어 음역은 <하르 므깃도>입니다. <하르>라는 단어는 ‘작은 산’이라는 뜻이므로 <하르 므깃도>는 ‘므깃도 산’을 가르킵니다.

‘아마겔돈’이라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아겔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므깃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다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명사형으로 고칠 때 <가다드>라는 단어 앞에 <마>라는 접두어를 붙어게 되어 <마게드>가 되는데 이는 “군사를 소집하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접미어 <오>를 붙여 <마게돈>이 되면 이는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아마겔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장소가 실제 장소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이뤄집니다.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할만한 장소는 어느곳일까요? 그곳은 어느 한 지역이나 장소가 아닌 보다 폭 넓은 공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이미 바벨탑 때부터서 하나로 뭉치려는 작업이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

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난 이후 줄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온 집중을 다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탄은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창 6-9장) 사건으로 인해 애써 길러 놓은 이 세상 대적자들이 한꺼번에 몰살 당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니므롯'이라는 이 세상의 영걸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바벨에 탑을 세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세우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함께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흠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을 온 세상 지면에 흠으셨던 것입니다.

“[창 11:1]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5]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창 11:6] 여호와께서 가

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추진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또 다시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하면서 다시는 흠어지지 말 것을 다짐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의 과학과 문명을 이용하여 매우 신속하게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이 이미 말랐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서방의 왕들과 신속하게 만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루만에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과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아주 신속하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이라는 과학 기술을

통해 한 날 한 시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은 것입니다.

“[계 16:17]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계 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계 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계 16: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공기’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러라”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17절 하).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곱째 대접을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 되었다..."(17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 고넨>으로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재앙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은 이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주님은 일곱째 대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 재앙의 끝은 곧 사탄의 멸망이며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 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

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18절 하).

그 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의 도시가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세상에 떨어져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60~100파운드(대략 30kg~50kg)정도입니다. 우박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게 경배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 끝하나 다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26 장

/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계 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음녀의 받을 심판에 대해 사도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음녀’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음녀’라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간음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자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음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이 없다면 우리는 보다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 가까이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18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에 대한 기록을 크게 세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요한계시록 7:1-3이고 두번째는 12-13장이며 세번째는 17-18장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사탄에 대한 크고 작은 여러 설명들이 들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삼단계로 사탄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일곱인' - '일곱나팔' - '일곱대접'의 전개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사탄에 대한 설명도 점차 구체적이고도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첫번째는 요한계시록 7:4-17까지이고 두번째는 14장이며 세번째는 19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도 반복될수록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계 17: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 17: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계 17:4]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 17: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

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음녀로 인해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2절). 이는 사탄에 의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보다 구체적인 ‘음녀’의 최후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요한이 보니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3절 중). 음녀가 타고 있었던 짐승의 색깔은 붉은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입고 있는 옷도 붉은 색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4절 상). 짐승과 음녀의 색깔이 붉은 색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보혈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붉은 색이고 짐승과 음녀의 색도 붉은 색이지만 너무나 다른 색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자녀를 위해 흘린 피였지만 짐승과 음녀의 색은 자녀를 죽이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짐승과 음녀는 우리를 죽입니다. 사도요한은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취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

들의 피에 취한지라..."(6절). 마치 술에 취하듯이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사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실로 하나님을 대적인 자요 멸망당할 자입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 "...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3절 하).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이며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계 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인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람된'이라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로 '비방', '중상',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성모독을 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음녀에 의해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짐승의 등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은 음녀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서 하나님을 대적인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음녀의 이바에 '큰 바벨론'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과 함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

도 포함되었습니다.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은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많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과 똑같은 '작은사탄'들을 이 땅에 심어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작은예수'를 심어 두신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계 17: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계 17: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계 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 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계 17: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사도요한이 사탄에 대해 기이히 여기고 있을 때 천사가 “왜 기이히 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7절)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 비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짐승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 따를 짐승이었습니다.

천사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 그 비밀을 말해 주었는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며 그것은 일곱 왕이었습니다. 천사는 “...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감간 동안 계속하리라”(10절)고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일곱 머리는 어느 특정한 일곱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을 말합니다. 그 수가 ‘일곱(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도 완전수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이처럼 완전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완전수를 사용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완전수를 사용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완성하는데 완전수를 사용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수에 대한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흉내를 냈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왕 중의 ‘다섯은 망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망해버린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있고’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왕이 있다는 표현

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생겨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11절 상)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미 사라졌던 왕이 또 다시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시 생겨난 왕의 모습이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망해버린 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뜻은 이미 그가 일곱 왕 중에 속해 있었던 자고 예전에 있었던 왕과 하는 짓이 너무나 똑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이 생겨날지라도 여전히 '일곱 왕'이 되는 것은 '일곱 왕'이라는 숫자가 특정한 왕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짐승의 '일곱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계 17: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계 17: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 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천사는 계속해서 짐승의 '열 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12절)라고 말하면서 그 열 왕은 "...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앞으로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열 뿔'이 '열 왕'이라는 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일곱(7)'이 '천국의 완전수'라면 '열(10)'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일곱(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열(10)'은 '사람의 완전수'입니다. 10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열(10)'이라는 숫자가 사탄에 의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왕들의 숫자로 완전수가 됩니다. 좀 전의 '일곱(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완전한 계획이라면 '열(10)'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둘 다 완전수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완전수'와 '인간의 완전수'로서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추종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추종 세력은 짐

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13절). 이러한 ‘열 왕’의 짐승에 대한 충성심은 마치 24장로들을 연상케 합니다. 24장로들이 주님보좌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처럼 ‘열 왕’ 역시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훔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짐승을 도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의 최후의 전쟁은 이들과의 전쟁이며 당연히 주님은 “...만군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를 이기실...”(14절)것입니다.

“[계 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 17: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계 17:18]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음녀가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바 음녀의 앓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음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탄은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사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참으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 사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에 사탄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17절 상).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짐승과 그의 무리는 사탄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항상 또 다른 악한 자를 제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탄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음녀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16절). 결국 음녀는 자신을 따르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실제로 사탄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 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탄의 삼위일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짐승이 사탄을 물어 뜯고 거짓 선지자가 사탄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모습은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성경은 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7 장
/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계 18: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 18: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도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무너져 내리는 사탄의 나라를 보면서 사탄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나라에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했스빈다. “...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2절 중). 사탄의 나라는 귀신이 거하는 처소이며 더럽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탄과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3절 중). 이들이 사탄과 음행을 저지른 이유는 사탄으로 인하여 그들이 땅에 부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3절 하). ‘치부하였다’는 말은 부유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와 명예를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해 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 사탄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부와 명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유한 자들이 사탄과 함께 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께게도 이러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 유혹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유혹했을 정도이니 일반 사람들에게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 4: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 4: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4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탄의 나라에 거하지 말라 권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끊임없이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선지자를 통해 사탄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사탄의 나라에 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나라는 점점 그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모두 사탄의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 18: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 18: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계 18: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 하니 [계 18: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사탄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치다'는 말은 <콜라오>인데 이는 '결함하다', '달라붙다'란 뜻입니다. 이는 사탄의 죄가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착 달라 붙듯이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조차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5절). 너무나 사탄의 죄가 하늘에 달라 붙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죄에 대해서 그 행위에 갑절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6절). 하나님께서 사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실 때 갑절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갑절로 물으실 것입니다.

"[계 18: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계 18:10]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사탄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사탄을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슬퍼 할 것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9절 하). 얼마나 사탄을 좋아하고 따랐으면 사탄이 멸망할 때에 그토록 슬퍼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갑절의 분노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계 18:11]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 18: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 18: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계 18: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계 18:15]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계 18:16]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계 18: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계 18:18] 그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계 18: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사탄이 멸망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못내 아쉬워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임금들이 사탄을 그리워하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사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탄을 통해 부유함을 누리며 세상의 쾌락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는 술집이 불에 타면 술집에 자주 갔던 술꾼들이 못내 그 술집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탄이 멸망당하였어도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스스로 사탄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계 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계 18:21]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 18:22]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 18:23]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 18: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사탄의 멸망과 사탄의 나라의 무너짐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으며 피를 흘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린 자들은 사탄의 멸망 날이 저들의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저들의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사탄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은 주님께서 그 어떠한 원수값음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28 장

/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계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 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계 19:3] 두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 19: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 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1절 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떨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은 천국에서의 찬양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차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5장에서 처음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그리고 19-22장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갑자기 찬양을 좋아하는 자로 변화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계 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에 드디어 하늘의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어린 양되신 주님께서 신랑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9절 상).

신부에게 입혀지는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하얀 웨딩 드레스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 때에 더럽고 추한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는데 어찌 보잘 것없는 드레스를 신부에게 입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주님께서서는 신부로 단장된 우리들을 가리켜 '아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내'에 쓰인 단어는 <귀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결혼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7절 중)라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귀네>보다는 신부를 가리키는 말인 <넴페>가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신부이지만

이미 결혼한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 19: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9절 상)고 말하였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은 <케클레레노니>로 <칼레오>(부르다)의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청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계 14:12)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에 대한 증

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는 <마르튀리아>로서 '증언', 또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증거자<마르투스>가 되며 이는 곧 순교자 (martyr)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말하길 "...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10절 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서 그런 신앙고백은 베드로의 스스로의 감정이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인 것입니다. '대언하다'는 말은 곧 '예언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은 곧 '대언'입니다. 이는 예언이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령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 참다운 예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에 따라 예언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
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
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계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서 백마 탄 분이 오십니다. 이 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
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16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입
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로서 '믿을만한', '신뢰할만한'이라
는 형용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피스티스>'라는 단어와 같
은 단어입니다. 다만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이 '충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믿을만한 분이시고 신뢰할만한 분

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뢰할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믿을만한 분이 아니시고 신뢰할만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거나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본인 스스로는 믿을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뢰할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신뢰하라고 강요하는 지도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은 직접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셨으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들도 먼저 믿을만한 행동을 하고 신뢰할만한 성격을 갖춘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신뢰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알레디노스>로서 '참된', '진짜의', '실제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 역시 주님의 성품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진짜'이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짜가 아닌 진짜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 19: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도요한은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으신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계 1: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할 수 있으신 것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보혈로 묻어있는 옷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13절).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일점 일획도 차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에 의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님의 보혈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렇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할 수 있습니다.

“[계 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들 모두 주님처럼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가 의미하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함입니다. 이 세

상의 그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것도 묻지 않는 고결함입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셨으니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마를 탄 군대들의 옷은 세마포였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천사임을 알게 해 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듯이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 역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마땅히 신부된 우리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계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

주님은 군대를 이끌고서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고 사탄의 무리들을 철장으로 다스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15절)

“[계 19: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계 19:18]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계 19: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 19: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사도요한은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천사는 새들에게 “...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17-18절)고 외쳤습니다.

천사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사탄을 쫓는 무리들의 죽음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탄의 무리들이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잃어버린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얻을 때에도 잔치를 여시지만 사탄의 무리들이 진멸당할 때에도 잔치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무리들을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사탄을 조금밖에는 안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사탄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 저토록 사탄을 싫어하실까?'라며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탄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탄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에 어느정도 물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조차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사탄과 가깝게 지내는 것조차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탄의 무리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리고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또한 사탄을 쫓는 무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대적해도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어찌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모두 사탄을 통해서 공급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사탄이 준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무리에 가담된 사람을 건져 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29 장

/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주님의 재림하심에 의해 사탄이 완전히 진멸당할 때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습니다. 용은 “..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2절 상)입니다. 천사는 사탄을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가둬 둘 것입니다.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게 된 사탄은 도저히 인간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갱 속에 갇힐 때 사탄을 추종했던 악한천사들도 함께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천사는 하늘전쟁에서 사탄의 편에 섰다가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사탄

을 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일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3절 중)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나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천년이 끝나고서 천국의 삶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을 취할 것이며 강 주변의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만국'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나라'로 여기십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사도요한은 여러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

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4절 상). 이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4절 중).

성경은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7절 하)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살아서'라는 단어는 <에제산>인데 이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 곧 장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이미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복천년이 시작될 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만 첫째 부활은 오직 합당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끝까지 지켜야 하며 2)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당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켜야 하며 3)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며 4)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

어 천 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좌정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은 이뤄질 것입니다.

“[눅 22: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실제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단 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를 차지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왕 노릇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만큼 믿음이 뛰어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왕 노릇

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참여하는 성도보다 훨씬 많을지 모릅니다. 이는 이 땅에 살면서 왕 노릇하며 살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큰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후사'이니 이미 당신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복천년

이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에덴동산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에덴동산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마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천년 기간동안 이 땅은 에덴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는 복천년 기간동안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복천년의 상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사 65: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 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 65: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사 65:23] 그들의 수고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천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복천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것과는 다릅니다. 복천년 때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모두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사가가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을 위한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황폐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힌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땅이 에덴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천년은 천년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년은 영원한 나라이지만 복천년의 기간은 천년입니다. 천 년동안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의 누릴 축복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복천년 때 누릴 축복도 큰 것이지만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천년 때 백 세가 되기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는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장수하는 삶을 누립니다(사 65:20-22).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각 개인마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사 65:21).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여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복천년 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사 65:23). 하지만 천국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복천년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천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사 65:24). 하지만 천국에서는 음성을 듣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도 없고 싸움이나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사 65:25). 이러한 복천년의 모습은 에덴동산의 재현입니다.

다. 아담이 누렸던 축복된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계 20: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복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복천년이라는 기간은 정확히 '천 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복천년이 이뤄질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복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가 없는 세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탄과 그의 추종자만 없다면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복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천년이 이뤄지는 장소는 곧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천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뤄진다는 개념은 천국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천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납니다. 만일 복천년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렇게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복천년이 이뤄지는 이 세상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복천년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가 없어짐으로써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복천년 때 이뤄지는 세상은 에덴동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보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창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처럼 좋은 세상이었던 것은 이 세상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기 전까지는 매우 아름다운 에덴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세상이 더러운 세상으로 변화된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입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 세상이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이 세상은 주님께 의해 다시금 에덴동산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천년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복천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도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없어졌음을 보았습니다. “...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11절 하). 사도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땅과 하늘’은 이 세상에 속한 땅과 하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새롭게 시작될 하늘과 땅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에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15절). '불못'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떨어진 곳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거하는 불못에 떨어져 사탄과 함께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지소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사탄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을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고 결국 그들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계 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4: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후의 세계

사람은 누가 죽게 됩니다.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한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100년 안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전 7: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동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을 거하게 하였고 에덴동산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덴동산은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에덴동산이 행복했던 이유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을 불사불멸의 존재로 거하였었습니다. 에덴동산에는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아담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죽음도 없었으며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먹을 것이 풍족했으며 죽음의 걱정도 없었던 에덴동산은 그야말로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복천년

하지만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에덴동산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에덴동산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천년 기간동안 이 땅은 에덴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복천년 기간동안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복천년의 상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사 65: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 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 65: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사 65: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천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복천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것과는 다릅니다. 복천년 때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모두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사가가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을 위한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황폐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힌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땅이 에덴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천년은 천년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년은 영원한 나라이지만 복천년의 기간은 천 년입니다. 천 년동안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의 누릴 축복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복천년 때 누릴 축복도 큰 것이지만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천년 때 백 세가 되기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는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장수하는 삶을 누립니다(사 65:20-22).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각 개인마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사 65:21).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여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복천년 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산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사 65:23). 하지만 천국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복천년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천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사 65:24). 하지만 천국에서는 음성을 듣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도 없고 싸움이나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사 65:25). 이러한 복천년의 모습은 에덴동산의 재현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축복된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사도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세계임을 보았습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한 그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복천년 때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사 65:18-19). 하지만 복천년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니다. 복천년 때의 모든 누리는 복이 천국의 복에 대한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복천년 때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막은 이 땅에서의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장막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히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지 오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장막'과 구약의 '성막'의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의 장막에 사용 되는 <스케네>라는 헬리어는 구약의 성막에 해당되는 <미쉬칸>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성막과 천국의 장막을 동일선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성막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성막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천국의 공기는 '믿음'입니다. 천국 어디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숨을 쉴 수 있듯이 천국에서는 믿음을 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은 소망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부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천국의 삶에는 소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사랑으로 가득찬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심령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취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한 부분이지만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거하면서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방문케 될 것입니다.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천국에 거하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는 각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밝혔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낙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행약자 중 한 사람에게 낙원에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낙원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복천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의 예비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록 천국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미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곧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는 육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가능합니다.

"[전 12: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낙원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낙원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천국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선한 자는 낙원에 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선한 자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강도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낙원에 거하는 것은 곧 천국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복천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자신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낙원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지만 저들은 심판 후에 곧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음부

음부의 개념도 낙원의 개념과 같습니다. 때가 되어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에 거할 자들은 지금 음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 음부와 지옥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진정한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음부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지만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눅 16: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눅 16: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거한 부자는 때가 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부활한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유황불' 혹은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영원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영원하듯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롬 10:9]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위대한 공헌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갑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와 내 가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소 이기적인 말 같지만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찌 큰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30 장
/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며 '바다'도 없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 땅과 바다가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땅은 모든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륙이 붙어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짐승이 방주로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일시에 전 세계 곳곳으로부터 방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오늘날 형성된 지구의 땅의 모습을 보면 아프리카 땅과 아메리카 땅의 모양이 이전에 붙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로 붙어있었던 땅의 형태를 가리켜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팡가이아>에서 따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1915년 독일의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안한 이름으로 현재까지 불리워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은 이처럼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지만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대륙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처음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번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에 홍수를 내리시어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셨던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만영했기 때문입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두번째 땅 역시 죄악으로 만영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첫번째 땅보다 훨씬 더럽혀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두번째 땅이 더럽혀진 까닭은 사탄의 활동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득불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땅에

임했던 심판은 '물'이었으나 두번째 땅에 임할 심판은 '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첫번째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두번째 땅은 곧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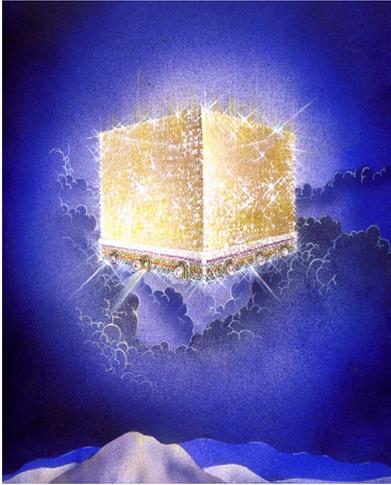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두번째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세번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번째 땅은 '복천년'이 이뤄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은 사탄으로 더럽혀졌지만 세번째 땅은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네번째 땅으로 다시금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네번째 땅은 세번째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땅은 첫번째 땅과 두번째 땅과 연결되는 변화 속에 세워진 새로운 땅이지만 네번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있었던 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이전 땅'과 다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

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사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2절 상).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이 하늘로

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은 천국 위에 거하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밋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런데 사도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가리켜 "... 그 예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2절 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왜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을 가리켜 ‘예비한 신부’같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성’에는 오직 주님의 신부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도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거하는 것과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3절 상). ‘하나님의 장막’

은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장막' 모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뜻하지만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며 '장막'은 텐트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장막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스캐네>인데 이는 성막을 의미하는 <미쉬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모세가 하늘의 장막을 본 따서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3절 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히리

니..."(4절 중).

이러한 복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차례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장막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사망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에게도 사망이나 고통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장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장막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장막은 모든 믿는 성도들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셨으며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산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 당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이나 천국이나 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슬픔과 애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6절 상)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절 상)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며 조금도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6절 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7절 상). 그러면서 "...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7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경배한 자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길이

손가락(Finger)

손가락은 성경의 길이 단위 중 최소 단위로서 한 손가락의 두께를 말합니다. 대략 2cm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의 두께를 '사지'로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손가락 네 개 정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십팔 규빗이요 그 주위는 십이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예레미야 52:21)

손바닥(Handbreadth)

손바닥은 일반 사람의 손바닥 넓이로서 대략 8cm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네 손가락의 두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진설병을 만들 때 손바닥 넓이만한 떡을 만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떡을 만들고 그 떡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출애굽기 25:25)

뺨(Span)

한 뺨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최대한 폼 때의 길이로서 대략 23cm입니다. 이는 대략 1/2 규빗에 해당됩니다. 잇라엘 사람들은 키를 잴 때 주로 뺨을 사용했는데 골리앗은 그 키가 여섯 규빗에 한 뺨이나 되었으니 그 키가 자그마치 3미터가 넘는 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집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뺨이요"(사무엘상 17:4)

규빗(Cubit)

규빗은 일반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대략적으로 50cm 정도됩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의 길이(장)가 300규빗이고 넓이(광)가 50규빗이고 높이

(고)가 30규빗이었으니 이를 오늘날 치수로 계산하면 150미터 x 25미터 x 15미터 정도 되는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창세기 6:15)

왕실에서 사용하는 규빗도 있었는데 왕실규빗은 일반 규빗에 비해 손바닥 넓이만큼 더 해졌습니다. 손바닥 넓이가 대략 8cm이니까 왕실규빗은 대략 55cm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왕실규빗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척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척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에스겔 40:5)

길(Fathom)

길은 사람이 양팔을 좌우로 벌렸을 때 손가락 끝에서 다른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한 길은 4규빗으로 대략 2m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위를 주로 수심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때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휩싸일 때에 바다의 수심을 잴었는데 그 때의 길이 대략 이십 길이었다고 나옵니다. '20길'은 대략 40m인 셈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이십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사도행전 27:28)

갈대(Rod)

'갈대'는 길이를 재는 지팡이와 같은 것인데 대략 6규빗 정도로서 3m 쯤 되는 길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는 거룩한 성을 금갈대로 척량하였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요한계시록 21:15)

스타디온(Stadia)

스타디온은 헬라에서 쓰던 길이 단위로 185m 정도 됩니다. 사도요한이 보는 거룩한 성

은 장광고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따라서 대략 2,400km 정도 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요한계시록 21:16)

“[계 21: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계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9절)고 말하면서 사도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보여준 ‘어린 양의 신부’는 곧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이니”(10절 하).

사도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은 이미 21장 2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깨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처럼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재차 ‘거룩한 성’을 보여준 것은 그만큼 거룩한 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에 대한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을 표현할 때 거듭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천국 위에 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은 천국과 구별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계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11절 상).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그 성의 빛이 마치 귀한 보석처럼 빛났으며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11절 하).

거룩한 성에는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12절 상). 열두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는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룹과 화염검'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열두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12절 하). 거룩한 성의 문들은 각 면마다 3개씩 놓여져 있었습니다.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남편에 3개, 북편에 3개씩 도합 12개의 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2개의 문은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12개의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

니”(13절).

또한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합니다. 성곽이 튼튼해야 성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는 주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14절).

“[계 21: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계 21: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사도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거룩한 성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습니다. “... 금 갈대를 가졌더라”(15절 하). 그는 거룩한 성의 전체를 척량하면서 그 문들과 성벽을 모두 척량하였습니다. ‘갈대’는 척량할 때 사용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갈대’라고 하였으니 천사의 척량이 매우 정확함을 뜻합니다. 한치의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는 매우 정확한 척량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거룩하지 못한 신부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천사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놓여져 있는 두 그룹에 의해 합당치 못한 자들이 결코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을 척량하였더니 가로가 12,000 스타디온이고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며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여 장광고가 모두 같았습니다. "...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16절).

거룩한 성이 이처럼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하는데 이는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만을 받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우상을 섬기는 신부는 절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는데 이 길이는 대략 2,400km 정도입니다. 이는 한 스타디온의 길이가 185m 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넓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는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덴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 전체를 캘리포니아와 덴버 사이에 집결 시켜 놓은다면 미국 사람만 해도 부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거룩한 성의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

을까요? 그것은 12,0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1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천국의 숫자와 4라는 땅의 숫자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3과 4를 더하여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7이라면 3과 4를 곱하여서 만들어진 숫자가 12입니다. 7은 완전수이지만 12는 천국수입니다.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라는 숫자를 가장 큰 숫자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는 성곽의 두께를 측정했는데 그 두께가 144 규빗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성벽의 두께가 70m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두꺼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70미터나 되는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4,000의 수가 나옵니다. 이들 숫자와 성벽의 두께인 144규빗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 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사도요한이 들었던 인 맞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4,000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7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144,00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14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입니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이는 3과 4를 더한 수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데 3과 4를 더해 만들어진 7의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3과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는 '천국'을 가리키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곱하게 될 때 144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12 \times 12 = 144$). 여기에다가 '많다'란 의미의 숫자인 1000을 곱하게 되니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44,000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의 두께가 144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성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144라는 숫자는 천국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 21: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 21: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

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 21: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계 21: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놓여져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석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에봇에 걸쳐진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 39:8]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하였으니 [출 39:9]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출 39:10]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출 39:11]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 이요 [출 39:13]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출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열두 지

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은 모두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거룩한 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거룩한 성의 열두 문에 적혀져 있는 것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거룩한 성의 기초석에 적혀져 있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와 연관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열두 지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은 유대인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이바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한 열두 제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

음의 증거를 확실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거룩한 성의 성곽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 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사도요한은 거룩한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22절 상). 사도요한이 거룩한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예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22절 하).

거룩한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나 달의 비침보다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직접 거룩한 성을 밝게 비취기 때문입니다.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23절 하).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전체를 밝게 비추며 온 천국을 밝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 뿐만 아니

라 이 세상까지 밝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합 2: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완전히 저들의 삶이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빛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록 더욱 밝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치 모세가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출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러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또한 주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천국을 떠나 이 땅에 거하셨지만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들어갈 만한 성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지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가리켜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주님처럼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지성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골방'은 '육의 골방'과는 다른 것입니다. '육의 골방'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영의 골방'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골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상태에서도 골방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골방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취하게 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줍니다.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 21: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 21: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이라”

사도요한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24절)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만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국’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거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천국’과 ‘거룩한 성’이 서로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천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과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장소이지만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거룩한 성에는 오직 거룩한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성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27절 하).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은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자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언뜻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언급된 부분의 내용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옥이 아닌 천국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과 '거룩한 성'을 구분하여 놓으셨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직 거룩한 신부된 자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언뜻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죄악된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거룩한 성'이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에게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속된 것'이 없습니까? 당신은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죄악된 행위들이 천국과 연관된 것이라면 우리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은 '거룩한 성'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

거룩한 신부'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된 것'이라는 말은 <코이노스>인데 이는 '비속한', '부정한'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 외에도 '공동의'나 '보통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탄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부는 당연히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수많은 남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의'나 '보통의'란 뜻에 내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한 신랑의 것인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한 신랑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도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보통적인 신부로 전락하고 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브델뤼그마>로써 '가증한 것' 또는 '몹시 미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부가 신랑의 품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신부는 거룩한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떳떳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혼이 날까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를 숨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될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신부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천국과 거룩한 성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속된 행동을 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나 목회자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헛갈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천국이고 거룩한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천국과 거룩한 성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그것들의 차이를 인식하십시오. 그런다음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자꾸만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성과 천국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만 '행위'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행위'만 있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함께 '행위'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을 누구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
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에는 전혀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살 것
입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행위'
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위없는 믿음
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헛
갈려 하는데 믿음과 행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더러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
책에 기록하시고 천국에 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천국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더욱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뵙는 것은 실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 장

/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사도요한 생명수 강이 거룩한 성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1절). 사도요한은 하나님아버지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나란히 함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아버지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의 보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도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2절 상). 생명수 강이 거룩한 성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한 성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운데로 흐른다는 의미는 거룩한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국으로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의 물이 성소로부터 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다를 소성케 하는 물이 성소로부터 흐르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물은 죽은 사해 바다를 소성케 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생명수를 통해 살아남을 뜻합니다.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는 이처럼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온 세상에 흐르는 것처럼 거룩한 성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도 온 천국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성케 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2절 중) 그리고 그 나무에 열두 가지의 실과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2절 중). 생명나무에 열두 가지 열매가 매 달마다 열리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뜻합니다. 실제적으로 열두 가지 실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달마다 한 차례씩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열두 가지'라는 의미는 '충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거룩한성의 12개의 문, 생명나무의 12가지 등.. 이러한 12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은 거룩한 신부된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문이며 생명나무의 12가지는 만국이 소성케 됨을 얻게 하기 위한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수 강 가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 만국을 소성케 하셨습니다. "...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2절 하). 이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야만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토록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는 자만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다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얻는 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며 저들의 삶이 날마다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역시 성소에서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실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실과나무가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사도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똑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은 거룩한 성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거룩한 성의 생명나무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한 에덴동산에는 생명수 강도 함께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가운데로부터 강이 발원케 하셨고 네 개의 강의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덴동산의 모습은 거룩한 성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창 2:10]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이 땅에 만드셨던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룹과 화염검으로 에덴동산을 막으셨던 것은 죄가 에덴동산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홍수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지만 점차적으로 멀어져만 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지막 보류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셈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신부가 되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서 뵈게 될 것입니다.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3절 상).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저주’는 사탄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원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한 사탄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 3: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다시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임

니다. 저주내린 인생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 이나 저주로부터 해방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주내린 인생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억압받으나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더욱 가까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뵈기를 사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저들이 하나님 뵈기를 사모했는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4절 하).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왕같은 자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에 거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하기 보다는 거룩한 성

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의 장막(성전)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없이 어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계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천국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며 그 장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장막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한 성은 다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이는 신랑되신 주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아내들이나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과 떨어져 사는 것을 보았습니까? 거룩한 신부된 자들은 거룩한 성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계 3:21)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계 22: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이셨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6절 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의 말씀은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속히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7절 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

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
러 가노니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요한
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성경책보다 훨
씬 예언의 말씀이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책'을 성경 전체로 보아도 무방한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
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요한계시록만 중요한 책으로 여
기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여겨야
하며 그 어떠한 성경책도 어느 특정한 성경책보다 하위에 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말씀을
골고루 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는 골고루 영적
영양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계 22: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들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계 22:9]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요한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들려준 천사에게 엎드렸습니다. 천사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8절 하). 이는 사도요한에게 있어서 천사가 너무나 위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저절로 천사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 숭배사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각 나라에 전해지는 어떤 우상이나 무속신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세우신 것도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신앙 중의 하나가 바로 천사 숭배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은연 중에 천사에 대한 숭배사상이 심령 가운데 뿌리박혀져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도요한조차도 상대방이 천사임을 알면서도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재하고 있는 천사숭배사상처럼 우리들에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경배사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물건이 다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물건마다 경배해야 할 신의 존재가 됩니다. 특별히 물건 중에서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집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로막는 모든 우상에게 "물러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 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 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되게 하라"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10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내용과 정 반대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계 10:4]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고 한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주님의 때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지 아니하고서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때가 이미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인봉되지 아니한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라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악한 일만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11절)

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까지는 천사가 사도요한에게 말을 들려주었지만 12절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12절)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급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처럼 듣기 싫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상급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라며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상급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상급은 우리의 천국의 삶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험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급은 '일한 대로 갚아 준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한 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신이 험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았다면 천국에서의 상급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채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서 매우 당황스러워할 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은 곧 나로 하여금 가정을 위해 일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곧 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곧 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한 만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당신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계 22: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5] 개들과 술

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두루마기를 빨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
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옷을 깨끗케 해 줍니다. 우리의 옷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만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해 줍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이 악한 세력을 쫓아 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에 오실 때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주님은 이해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1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언급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언급되었습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 하는 것은 신랑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러운 행위를 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무엇하나 더러워서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하지만 더더욱 신랑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

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부가 신랑 몰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신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신부가 신랑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신부를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신부가 신랑 몰래 잘못을 해 놓고서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이 또한 거룩한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참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에게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아 보십시오. 당신은 '속된 것'이 없습니까? 당신은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죄악된 행위들이 천국과 연관된 것이라면 우리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은 '거룩한 성'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거룩한 신부'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들 중에는 '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는 '술객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는 '행음하는 자'가 있으며 '살인자하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있으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들 중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 중 그 누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우상처럼 섬겼으며 부모를 우상처럼 섬겨왔습니다. 우리들 중 행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해도 간음했다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간음쟁이입니다. 그 누가 개나 돼지같지 않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 '개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우리들 중 '행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우리들 중 '살인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우리들 중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차이를 알아야만 목표가 생깁니다. '천국'이 목표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잘 지켜도 천국은 보장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은 믿음만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은 오직 거룩한 신부만 들어갑니다.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16절).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교회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엡 1:22]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건물로 형성된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 성도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인 성도가 모여 건물인 교회가 형성되어 이러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일 때 열방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16절 중). 다윗의 뿌리라 하심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십니다.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며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면 달을 자가 없게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 22:22]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달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또한 "...광명한 새벽별..."(16절 중)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the bright Morning Star 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계명성'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고”

그런데 이 '계명성'은 단순히 'mornig star'입니다. 이는 'the bright Morning Star'이신 주님과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주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빛나는 계명성'이시니 자신도 '계명성'이 되어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도요한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성령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부'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함께 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하는 것일까요? 성령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성령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으나 그 자리를 성령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처할 거처를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모두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에서 성령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은 성령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거하는 분은 성령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동

행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 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계 22: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한 계획을 성경에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말씀을 더하거나 제할 경우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 12: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제할 경우엔

재앙이 그에게 임할터인데 저들로 하여금 결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면 매우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보좌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수를 마음껏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이 땅에서의 당하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제하는 죄를 짓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20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요한은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외

했습니다. 그리고는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도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좀 있다 오세요. 지금은 할 일이 많사옵니다"라고 고백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혜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영해)

초판발행 2015. 11. 23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GE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